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86호 【루계 제23038호】 주체99(2010)년 3월 27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출판, 발행식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15일 단마르크 울리크 라르센외국문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발행식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발행식장에 전시되여있었다.

발행식에는 단마르크공산당, 단마르크의 공산당,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발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7(2008)년 9월 5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발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걸어온 60년력사는 위대한 투쟁과 승리의 력사,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력사이라는데 대하여, 공화국이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서게 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가 주체99(2010)년 4월 15일에 즈음하여 김정일동지의 이 력사적인 로작을 출판한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를 에꽈도르 볼룬따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17일 끼또에서 진행되였다.

발행식에는 총사장 움베르또 오르띠스 플로레스를 비롯한 에꽈도르 볼룬따드출판사 인사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총사장은 발행식에서 한 연설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여러차례 받는 기회에 그이의 위대성에 끝없이 매혹된데 대하여 언급하고 그이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을 피력하였다.

그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태양절기념준비위원회 결성 이딸리아에서

태양절기념 이딸리아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8일 헤르모시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이딸리아공산주의자당 헤르모시위원회,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이딸리아지부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이딸리아지부 대표는 결성식에서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생애와 업적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생애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지켜주신 전설적위인의 한생이였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주석께서는 20대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려 30대에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40대에 조선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생애는 또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시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헌신의 한생이였다.

주석께서는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우리는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맞으며 세계혁명과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주석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을 활발히 벌리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딸리아공산주의자당 헤르모시위원회 비서 렌쪼 인떼르렌기가, 부위원장으로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이딸리아지부 대표 흘라비오 뻬띠나리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보급하며 토론회, 도서,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사 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자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지금 우리 인민은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고 모든 생활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우리가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것과 함께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적요구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높이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를 일으켜나가는 때일수록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는것만으로는 누구나 자기 단위의 사업, 자기자신의 혁명과업수행에서 실적을 올렸다고 떳떳이 말할수 없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문제는 생산정상화와 현대화를 실현하는 사업만큼 중요한 위치에 놓고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투쟁과업이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사업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적들과 치렬한 전투를 벌리는 엄혹한 조건에서도 생활을 규모있고 절도있게, 락천적으로 하였다. 래일의 승리를 굳게 믿는 신념의 강자들만이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투철하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속에서도 자기가 사는 고향과 마을, 일터와 가정을 알뜰히 꾸리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온 불굴의 혁명가들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철주야의 강행군으로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와 함께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는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여기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우리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문명한 인민으로 되게 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있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 사람이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애국자이다.

우리는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내밀어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단련된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강성대국의 령마루에로 비약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여야 한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은 전인민적인 애국사업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열렬한 조국애와 향토애를 지니고 우리의 생활환경을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야 한다. 공장과 협동농장들은 물론 모든 도, 시, 군들과 가정, 인민반들에서 다 떨쳐나서야 한다. 나무심기, 도로관리를 비롯한 국토관리사업과 군중문화예술활동, 대중체육활동, 《충성의 7월11일붉은기동(읍, 구), 인민반》쟁취운동과 《선군생활문화모범가정》창조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평양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도시민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는 사업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 특히 봄철위생월간에 도로와 꽃밭정리, 나무심기를 비롯한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사업을 계획적으로 빠른 기간에 진행하여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시안의 모든 거리와 마을, 일터를 위생문화적으로 깨끗이 꾸려야 한다.

현지지도단위들을 본보기로 하여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는 사업을 혁명적으로 내밀어야 한다.

올해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린 룡성식료공장을 비롯한 현지지도단위들은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공장안팎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놓았다. 현지지도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데서 기본은 이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혁신적인 일본새를 따라배우는것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현지지도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처럼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는 사업을 기본혁명과업과 함께 2대과업의 하나로 틀어쥐고 내밀어야 한다. 시대적요구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목표를 높이 세우고 한가지를 해놓아도 눈이 번쩍 뜨이게,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해놓아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는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제손으로 창조하겠다는 자각을 가지고 자기 일터와 마을을 꾸리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는 문제를 매주, 매월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하나하나 모가 나게 풀어나가야 한다.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밀고나가며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것이 해당 단위 사업에서 떼여놓을수 없는 한부분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이룩하자면 일군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모든 사업에서 성과는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일군들은 선군시대의 지휘성원답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하고 완강하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자기 단위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켜 21세기 표본공장, 표본농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목표를 가지고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근기있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혁명적대고조의 분위기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집체적지혜를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어 누구나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는데서 혁신적인 안들을 적극적으로 내놓도록 하여야 한다. 모범적인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제때에 소개하고 일반화하며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 어디에 가나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들끓는 분위기가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진격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대고조시대를 빛내이는 영웅적위훈을!

총공세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 활발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과 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불면불휴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견결한 혁명가,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히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의 사상과 정신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해설선전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의 책임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에 담겨진 사상과 정신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주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공동구호의 사상과 내용을 직관화하여 전투현장들에 게시해놓고 그것을 통한 해설선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현지지도단위들과 탄광, 광산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예술선동력량을 파견하여 생산과 기술개건을 힘있게 추동하는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리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함흥시를 비롯한 시, 군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방송선전차활동과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강화하여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흥남지구와 검덕, 단천지구를 비롯한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과 시, 군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높은 실적으로 빛내여나가도록 대중의 정신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고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대상설비생산에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대고조시대 군중문화의 본보기가 창조된 단위답게 화선식정치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 비료생산을 늘이며 가스화대상공사를 기한전에 앞당겨 끝내기 위한 투쟁에서 로동자, 기술자들이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와 룡양광산, 대흥청년영웅광산, 단천제련소, 단천마그네샤공장, 단천광산기계공장 당조직들에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자기 단위가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로동자, 기술자들속에 깊이 인식시키면서 모두가 3월전투목표수행에서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고있다. 함흥시와 단천시, 함주군과 정평군, 고원군을 비롯한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도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사설의 과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공업공장들과 발전소당조직들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부문 당조직들이 들끓는 현실속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패기있게 벌려 일터마다에 드높은 혁명적기상이 차넘치게 하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탄광, 광산, 발전소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김철소식

주철생산을 우리 식으로

최근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우리의 원료와 연료로 용선로에서 직접 주철을 생산하는 방법을 완성하여 생산에 받아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배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대고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식의 철생산체계를 완성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의 생필분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주철 및 주철제품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킬 목표를 세웠다.

공장장, 주물직장장을 비롯한 분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용광로에서 생산한 선철을 용선로에서 다시 용해하여 주철을 생산하던 기존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우리의 원료와 연료로 용선로에서 직접 주철을 생산함으로써 생산의 주체성을 보장하며 많은 자재와 자금, 시간과 로력을 대폭 줄일 결심밑에 과감한 투쟁을 벌려나갔다.

고심어린 탐구속에 용선로와 비슷한 시험조건에서 해탄과 소결공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원료와 연료로 주홍빛쇠물을 받아낸 그들은 대담하게 용선로에서 직접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실패가 거듭 되였다. 하지만 그들은 주체적인 철생산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주철생산에서도 기어이 현실로 꽃피워나갈 불굴의 의지를 안고 아직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갔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기술자, 기능공들로 돌격대를 조직한 분공장에서는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면서 용선로에서 우리의 원료와 연료로 직접 주철을 생산하기 위한 시험을 힘있게 내밀었다. 그들은 수십차례의 실패에도 물러서지 않고 완강한 공격정신을 발휘하여 마침내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와 연료로 용선로에서 직접 질좋은 주철을 뽑아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종래의 주철생산방법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식의 주철생산전망을 확고히 열어놓게 되였다.

지금 분공장에서는 이미 꾸려져있는 설비들을 그대로 리용하면서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와 연료로 용선로에서 직접 주철을 뽑아내여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주철제품을 만들어내고있다.

주체철생산체계가 완성되여온 나라가 끓고있는 때에 김철에서 주체철용광로를 일떠세우고 련이어 우리 식의 주철생산에서 성공한것은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성과로 된다.

본사기자 로주봉

인민생활에 필요한 질좋은 편직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평양어린이편직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석탄생산성과 확대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석탄증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안의 탄광들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1월과 2월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3월전투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입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석탄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감으로써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의 일군들은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수시로 변화되는 막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 탄차와 동발나무 등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모든 채탄중대들이 그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의 치밀한 경제조직사업과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에 의하여 련합기업소안의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증산투쟁의 앞장에는 득장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서있다.

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이곳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갱막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련일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탄광에서는 석탄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기본굴진, 준비굴진에 력량을 집중하여 전망이 좋은 탄밭들을 넉넉히 마련해놓았다. 그리하여 1갱, 6갱, 5갱을 비롯한 탄광안의 모든 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생산에서 날마다 실적을 올리며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봉창지구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속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이곳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막장마다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치고있다. 지난 2월 석탄생산계획수행의 앞장에서 달려온 1갱과 6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하게 들어설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계속 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탄부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탄차, 동발나무를 비롯한 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명학탄광, 룡산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석탄증산목표를 높이 내세우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일정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선군시대에 세차게 나래치는 백두의 혁명정신

력사적인 요영구회의기념일을 맞으며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여도 변할수도 바뀔수도 없는것이 백두의 혁명정신이며 전통이다.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천만군민의 정신력과 투쟁기풍도 항일의 나날에 창조된 백두의 혁명정신에 뿌리를 두고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자랑찬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로 하여금 한평생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백승을 떨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게 하고있다.

력사의 땅 요영구는 오늘도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주저앉을것이 아니라 맞받아나가 최후승리를 이룩해야 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요영구회의는 인민혁명군이 유격구역을 사수하기 위한 전략적방어로부터 전략적공격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적계기로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올릴수 있는 획기적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요영구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75년세월이 흘렀다.

요영구, 그 이름 조용히 불러보면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겹쳐들던 1930년대 중엽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던 백두산청년장군의 거룩하신 모습이 숭엄히 안겨온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고귀한 성과와 경험들에 기초하여 혁명투쟁을 가일층 확대발전시켜야 할 절박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이 임무는 우리들로 하여금 제한된 지역의 유격구를 떠나 보다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하여 대규모적인 유격전을 조직전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투쟁을 보다 적극적인 단계에로 발전시켜야만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지성원에 의거하여 적들에게 커다란 정치군사적타격을 줄수 있으며 당창건사업과 통일전선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을것이다. …

전략적방어로부터 전략적공격으로!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바로 이것이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요영구회의에서 제시하신 전략적인 로선이다.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하는것은 그때 우리 혁명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요구였다.

당시 유격구에 대한 일제의 《토벌》과 봉쇄책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적들은 발톱까지 무장한 수천수만명에 달하는 정예무력을 동원하여 유격구를 겹겹이 포위하고 날마다 《토벌》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집단부락을 설치하고 중세기적인 《보갑제도》를 실시하였다.

유격대와 인민들사이의 련계를 끊어버리기 위한 적들의 책동에서 기본은 집단부락정책이였다. 적들이 집단부락안 주민들의 분렬과 리간을 얼마나 꾀하였는가 하는것은 오가작통법 한가지만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적들은 다섯집으로 한개 조를 뭇고 그중 한집이라도 유격대와 내통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안의 모든 세대들에 꼭같은 처벌을 주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그 다섯집의 주민들을 전부 학살하군 하였다.

적들은 이것도 성차지 않아 농작물도 초토화대상으로 삼았다.

싹이 돋아나는 곡식은 군화로 짓밟았고 성장기의 작물은 모조리 불을 질러 태워버리였다.

이 모든것은 간도의 유격구들을 인간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절해고도의 세계로 만들어버리고 질식시키기 위한 적들의 대살인광대극이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유격구를 보위하는데만 몰두하게 된다면 다년간에 걸쳐 육성한 혁명력량을 보존하지 못하게 될것이며 적들과의 싸움에서 피동에 빠지게 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이러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주체24 (1935) 년 3월 요영구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시고 해방지구형태의 고정된 유격근거지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대부대활동을 벌릴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잊지 못할 그날을 돌이켜보시며 이 회의의 결정으로 하여 우리는 유격구역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나 동북과 조선의 광활한 판도에서 적극적인 대부대유격전을 령활하게 벌릴수 있는 창창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라고 추억하시였다.

세계 그 어느 명장들과 위인전의 갈피에 이런 위대한 력사가 기록된적이 있었던가.

오직 주체의 신념, 철의 의지를 지니신 우리 수령님이시기에 력사에 류례없는 엄혹한 난관앞에서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조선혁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올리실수 있었다.

요영구회의후 유격구를 주동적으로 해산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우리 수령님의 업적은 또 얼마나 위대한것인가.

그때 적들은 군대와 인민이 유격구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군사적봉쇄를 더욱 강화하고 민심의 동요를 일으키기 위한 공세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그런데다가 대다수인민들은 유격구를 떠나고싶지 않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구해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요영구에서 군민련환대회를 여시고 유격구해산의 절박성과 정당성을 해설해주시였으며 유격구인민들의 이동방향과 방법, 새로운 활동지대에서의 투쟁방향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동만의 각 현과 혁명조직구들에 특파원들을 파견하시여 같은 성격의 대회를 열고 인민들이 유격구해산사업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도록 하시였다. 한편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적극적인 군사활동으로 적들의 책동을 제압하고 군대와 인민이 순조롭게 유격구를 빠져나갈수 있게 하시였으며 유격구를 떠나는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생활상방조를 주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인민들은 유격구해산의 절박성을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정당한 전략적조치로 받아들이게 되였으며 그해 5월에 시작된 유격구해산사업은 11월초에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우리 수령님께서 단행하신 유격구해산조치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그후 우리 혁명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전반적발전과정을 통하여 실증되였다.

유격구의 주동적인 해산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함으로써 우리의 혁명력량을 간도의 협소한 산악지대들에 몰아넣고 질식시키려던 적들의 기도는 완전히 좌절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대소부대들이 광활한 지역에서 적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과감히 타승함으로써 혁명의 불길은 조선과 만주의 넓은 지대에서 거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우리는 력사적인 요영구회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혁명가, 불세출의 령장의 위인상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게 된다.

우리 혁명의 길우에 고귀한 투쟁의 진리를 아로새긴 요영구회의, 력사의 땅 요영구에서 힘차게 나래친 백절불굴의 공격정신, 이는 조선혁명을 승승장구의 길로 떠밀어준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다.

우리 당의 혁명업적과 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것은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1930년대 중엽 우리 수령님께서 조직진행하신 력사적인 요영구회의의 정신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위대한 선군시대에 더욱 빛나고있다.

항일의 나날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요영구를 언제나 마음에 두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신것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고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그이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였다.

그 강철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넘고 헤치신 강행군길은 몇천몇만리이며 쌓으신 업적은 그 얼마이던가.

최전연의 오성산과 351고지, 초도와 대덕산은 오늘도 비바람, 눈보라를 뚫고 전선길을 종횡무진하시며 조국을 지켜주시고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감동깊이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길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과 같이 세상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날수 있겠는가.

이 땅우에 이룩되고있는 자랑스러운 성과들은 어버이수령님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안아오신 빛나는 결실인것이다.

불굴의 담력과 의지로 언제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시고 우리 혁명을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것이며 이 땅우에는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이 일떠설것이다.

본사기자 렴철호

믿음으로 이어주신 락원의 전통

올해공동사설에는 우리 인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정신력을 지닌 위대한 인민이며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정신력을 기본무기로 하여 전진하는 불패의 위업이라고 지적되여있다.

당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에 새길수록 창조의 동음높은 이 땅의 방방곡곡을 찾고찾으시며 일터마다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의 나날들이 추억깊이 돌이켜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심장에 지펴진 혁명적인 사상정신의 불씨에 의하여 타오르는것이 사회주의건설에서의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언제인가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신포향주철직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현장에서 일하고있는 로동자들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한 일군이 이 직장에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주철직장당세포 당원들의 자녀들도 일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이런 보고를 받으시고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주의깊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조국해방전쟁시기 주철직장당세포 당원들을 따라배우라는것은 그들의 기술수준을 따라배우라는것이 아니라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라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지녔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귀중합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세월이 흘러도 변할수 없고 세대가 바뀌여도 끝까지 이어져야 할 투쟁정신, 당과 수령이 준 과업이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것이여도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쇠물을 부어 수류탄을 만들고 재더미속에서 양수기를 만들어낸 그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는 웅심깊은 뜻이 담겨진 귀중한 말씀이였다.

일군들의 자책은 컸다.

빈터우에서도 그 누구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과 수령이 준 과업을 기어이 해내고야만 그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새 세대 로동계급이 따라배우고 이어나가도록 교양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진행하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헤쳐온 로당원들이 새 세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제일가는 재부는 불굴의 정신력의 자랑찬 전통이라는 귀중한 철리를 일깨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의 귀중한 말씀을 다시금 뇌리에 깊이 새기며 일군들은 새 세대 로동계급이 자력갱생과 더불어 빛나는 충실성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게 할 굳은 결심을 다지고 또 다지였다.

그후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락원땅을 자주 찾으시여 자력갱생의 빛나는 투쟁전통을 가지고있는 락원의 로동계급이 50년대에 발휘하였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근위부대의 영예를 계속 떨쳐가라고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지난해에만도 여러차례나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대형산소분리기생산은 락원의 로동계급을 믿고 주는 당의 전투적인 과업이라고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그 열렬한 믿음이 있었기에 락원의 로동계급은 대형산소분리기생산을 앞당겨 끝낼수 있었다.

백두산위인들의 따뜻한 품,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연길폭탄》의 력사와 《천리마시대의 서사시》를 배우며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자력갱생의 길로 꿋꿋이 걸어나감으로써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이 땅에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계성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다 카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대통령

질루르 라흐만각하

나는 방글라데슈독립 39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날로 좋게 발전하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진보와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9 (2010) 년 3월 26일 평 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진행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현지지도 기념보고회가 26일에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리태남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련합기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 전광두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98 (2009) 년 3월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찾으시고 화풍탄광 채굴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활성화를 위한 준비정형과 개발전망계획, 석탄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탄부들을 고무격려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며 탄광을 전망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석탄생산을 활성화하는데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고무적기치로 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하여 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화풍탄광을 비롯한 탄광들의 배수능력을 높여 짧은 기간에 석탄생산을 정상화하고 지난해 기업소적인 년간계획을 완수하였으며 올해에 들어와서도 매달 계획을 수행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떨쳐나선 기술자들과 탄부들이 선진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설비들을 갱신하고 수많은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을 받아들여 석탄증산에 이바지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탄광들에서 정양소와 영양제식당을 더 잘 꾸리고 탄부들의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놓았다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석탄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립석, 룡림탄광 등에서 유리한 채굴조건을 마련하며 탄광들의 갱건설을 다그치고 채탄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안, 창의고안들을 받아들여 생산을 장성시킬것이라고 말하였다.

일군들은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 탄부들의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탄광들에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전투장마다에 혁명적이고 락천적인 기상과 랑만이 차넘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올해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김철로동계급의 편지의 사상과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 질좋은 석탄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제때에 보내줌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혁명적동지애로

박 영 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내가 속한 소부대가 처창즈유격근거지에로 행군해가던 때의 일이다.

1933년 가을.

어느날 밤, 우리 부대는 험산속에서 고된 행군을 하다가 적의 포위속에 들었다. 사방에서 쏘아대는 적들의 총탄이 일시에 우리에게로 쏠렸다.

위급한 순간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어둠속에서 신속히 지형지물들을 리용하면서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였다.

부대는 안전한 곳에서 대오를 정돈하였다.

이때에 우리는 2명의 전우들이 대오를 찾아오지 못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다음날 몇명의 대원들이 돌아오지 못한 두 동무의 소식을 알려고 떠났다. 그들은 부대가 포위되였던 산지대를 낱낱이 뒤지였다. 바위틈, 덤불속, 골짜기를 죄다 찾았으나 두 동무의 행방은 알길이 없었다. 이리하여 부대는 2명의 전우를 잃은채 행군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6일이 지난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였다.

두 전우는 부대가 적들에게 포위된 그날밤에 중상을 입었었다.

한 대원인 장원동무는 왼팔에 상처를 입었고 또 한 대원인 리동무는 다리에 중상을 입었다. 부상당한 순간 그들은 골짜기로 굴러떨어졌다. 이리하여 그들은 대오를 잃게 되였다.

얼마후 장원동무는 의식을 차렸다.

(나 혼자일가?) 하고 그는 귀를 도사리였다.

그런데 멀어져가는 총소리가 멈춰질 때마다 가까이에서 모진 고통에 가늘게 신음하는 인기척이 들려왔다.

장원동무는 인기척이 나는 곳으로 기여갔다. 그는 엎드려서 나무뿌리를 거머쥐고 힘겹게 몸을 뒤적이는 리동무를 알아보았다.

장원동무는 얼른 자기의 속내의를 찢어서 피흐르는 리동무의 다리를 동여매주었다. 손이 아니라 이 발로써… 의식이 회복된 리동무 역시 내의를 찢어 관통상을 입은 장원동무의 팔을 동여주었다.

《리동무, 나에게 업히우오.》 장원동무는 전우를 부축이면서 타일렀다.

그 동무는 고통어린 얼굴에 간신히 미소를 띠고 말했다.

《나는 못 가오. 갈수가 없소. 동무도 상한 몸이니 나를 업고가려다간 둘 다 못 가고마오.》

리동무는 숨을 몰아쉬고 장원동무의 손을 꽉 그러쥐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난 아무래도 못 갈 몸이니 나를 제발 죽여주오. 원쑤의 손에 잡히기보다는 혁명동지앞에서 숨지는것이 행복이요. 빨리.》

그러나 장원동무는 거의 강다짐으로 리동무를 업고 비틀거리면서 걸음을 내디디였다.

가고 또 갔다. 돌에 채워 어푸러지기도 하고 기진하여 쓰러지기도 하면서 걸어갔다.

그들에게 원쑤 일제를 족치는 투사라는 자각이 없었던들, 강요된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서 원쑤와 싸워야 한다는 굳은 신념이 없었던들 그들은 한걸음도 옮길수 없었을것이다.

그들은 오직 일제를 타도하려는 하나의 투쟁목적으로 하여 한심장으로 숨쉬였다.

그들은 점점 힘이 진하였다. 이제는 걷는다기보다도 땅을 아득바득 톺아나가게 되였다. 게다가 굶주려서 허기증까지 났다.

그들은 지어 산짐승이 먹다버린 썩은 노루고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별식만 같아서 서로 권하였다.

때로는 산돼지들이 뚜져먹은 벌둥지의 꿀송이들을 주어먹기도 하였고 그 꿀을 서로 상처에 발라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간난신고를 겪으면서 그들은 6일간이나 유격근거지를 향해서 헤매였다.

어느날 처창즈유격근거지의 보초가 그들을 발견하였다.

동무들이 그들을 밀영으로 업어왔다.

그러나 리동무는 간신히 《장동무, 살아있소?》 하고 한마디 물은 다음 《살아있다.》는 대답을 듣자 얼굴에 안도의 미소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장원동무도 의식을 잃었다.

그들을 바라보는 전우들은 숭고한 동지애, 불굴의 투지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렇듯 항일유격대내에서 대원들은 한형제와도 같이 살았다. 우리는 한알의 감자를 열로 쪼개였으며 한줌의 담배도 나누어피웠다.

어찌다 받게 되는 군복도 내의도 서로 동지에게 양보하였고 전우를 위해 도움을 주는것을 누구나없이 기뻐하였다.

전투에서 한 동무가 중상이라도 당하면 다른 동무가 우박치듯 퍼붓는 총탄속을 뚫고들어가 그를 희생적으로 구원해내였다.

무송현 만강으로 가는 초처정자라는 곳에 우리의 림시병원이 있었다. 거기서는 리오남동무가 의사로서 여러명의 환자들을 치료하고있었다.

1937년 봄, 어느날 나는 련락병 복남동무와 함께 환자들의 병세를 알아보려고 험준한 산속에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다.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병원은 간데 없고 집터전엔 숯과 재만 있었다. 《토벌대》놈들이 불태운것이 분명하였다.

나와 복남동무는 알길이 없는 병원환자동무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곳을 떠났다.

강가에 다달았다. 무심히 숲속을 헤치고 강가를 내다보았을 때 수척한 두사람이 겨우 몸을 움직이면서 가재잡이를 하고있었다.

그들은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였다.

우리가 그들에게로 갔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반가와하며 우리 목에 매여달렸다.

병원이 원쑤들의 습격을 받은 이후 그들은 며칠씩이나 가재를 잡아먹으면서 살았다는것이였다.

《조반장》은 원쑤들이 병원을 습격하는 순간에 한 동무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를 업어나르지 않았던들 자기는 영낙없이 죽었을것이라고 감격에 싸여 말하였다.

나는 《조반장》의 상처를 보고 놀랐다. 허벅다리의 상처가 심하게 곪고있었다. 출혈과 상처의 아픔, 가슴을 허비는 허기증을 참는 그의 이마의 주름살에는 땀이 송글송글 나있었다.

그러나 그는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고 동무들을 위안하려고 쳐다볼 때마다 얼굴에 어설픈 웃음을 띠였다. 이것이 더욱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그들의 곤경을 보고 더 지체할수 없었던 나는 머나먼 길을 달려가서 부대에서 식량을 가지고 그길로 다시 환자들에게로 뛰여왔다.

그때 《조반장》이 말하였다.

《난 정말 살고싶소. 싸우고싶소. 일제놈들이 없는 우리 세상을 보고싶소.》

《조반장》의 눈에 열기가 올랐었다.

입술은 푸들푸들 떨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더니 다시금 말을 이었다.

《난 살지 못하오. 그러나 난 헛되이 살지 않았소. 나라를 되찾을때 내가 흘린 피도 추억해주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그를 부여안고 울었다. 우리는 그를 업고 30리가 넘는 길아닌 길을 헤치고 만강무기수리소가 있는 곳에 다달았다.

《조반장》은 거기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일제놈들은 심산속에 있는 이 만강무기수리소를 알아내고 불의에 습격해왔다.

모두들 무기와 기타 설비들을 걷어가지고 신속히 피신하였다. 그러나 병실에 누워있던 《조반장》은 미처 피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모두들 높은 산마루에 올라가서 협곡에 자리잡은 무기수리소를 내려다보았다. 일제놈들은 닥치는대로 불지르고 총을 쏘며 날뛰고있었다.

2~3명의 대원들이 《조반장》을 구원하려고 협곡으로 내리뛰였다.

그 순간 무기수리소에서 무서운 폭음이 울렸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만든 폭탄소리였다.

우리는 급히 무기수리소로 달려내려갔다. 《조반장》이 들어있던 병실은 무너지고 사처에 흙무더기만이 널려있었다.

무너져내린 흙과 나무들을 헤쳤을 때 거기에는 전사한 《조반장》이 있었고 그의 주위에 적들의 시체가 널려있었다.

모든것을 알수 있었다. 《조반장》을 생포하려고 적들이 무리를 지어 병실에 몰려든 순간 《조반장》은 품고있던 폭탄을 터친것이였다.

환자로서 죽음의 순간까지 원쑤를 쳐부신 《조반장》, 그는 자신이 말한대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둘도 없는 생명을 서슴없이 바친것이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항일유격대내에서 우리의 굳은 단결과 혁명적동지애는 불보다 뜨거웠고 강철보다 억세였다.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으로

과일군 연광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새 조국건설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신 귀감자료들을 깊이 학습하고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해설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한 작업반에 나간 초급당위원회의 일군은 작업의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김정숙동지께서 항일의 결전장들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서 해설모임을 진행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모두의 심금을 울리였다.

그날 참가자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최고화신이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며 오늘의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불굴의 투사가 될 철석의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리철만

구호문헌을 통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고있다. —어은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찍음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안고 봄철영농전투를 힘있게

각지 농촌들에서

주공전선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릴 각오안고

평원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평원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그것은 10만여t의 니탄을 캐내여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유기질비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올해농사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한가지 사실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힘찬 투쟁을 벌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농업생산과 전반적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지난해말 청보협동농장 제5, 6, 7작업반 논벌을 돌아보며 무엇인가 정열적으로 토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니탄을 한웅큼 캐들고 그 질을 가늠해보기도 하고 매장량을 계산해보기도 하는 그들은 군책임일군들이였다.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더 많은 니탄을 캐들일 높은 목표를 세운 그들은 탐사를 앞세워왔던것이다. 확실히 이 지구는 니탄매장량이 풍부한데다가 그 질도 좋았다.

어떻게 하면 짧은 기간에 니탄을 와닥닥 캐낼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군책임일군들은 여러차례 협의회를 하였다. 그후 군일군들과 협동농장일군들이 모인 군당회의실에서는 군당책임일군의 조용하나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농업전선은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전선의 하나라고 한 당의 숭고한 뜻을 모두가 심장깊이 새깁시다. 청년들을 내세워 니탄캐기전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낍시다.》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된다는 말이 있다. 군청년동맹책임일군을 려단장으로 하여 청년돌격대가 조직되였고 전투준비가 군책임일군들의 노력으로 실속있게 추진되였다.

며칠후 청년돌격대가 니탄캐기전투에 진입하였다. 대대별 사회주의경쟁이 선포되고 군안의 선전선동수단들이 전투장에 총집중되였다. 드넓은 벌을 뒤덮은 붉은기, 청년들의 심장을 쾅쾅 울려주는 격동적인 선동연설이며 혁명가요가 그칠새없이 울려나오는 방송선전차, 붉은 줄이 쭉쭉 키돋움하며 솟구치는 경쟁도표판과 혁신의 새 소식을 전하는 속보판들…

당의 부름이라면 바다도 메우고 산도 떠옮길 청년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청년들의 우렁찬 노래소리와 함성이 니탄캐기전투장을 들었다놓았다. 니탄을 신바람나게 파내는 청년들의 삽날에서도, 캐낸 니탄덩이를 질통에 담아 지고달리는 청년들의 발걸음에서도 불이 이는듯싶었다.

때아닌 진눈이 많이 내린 어느날 깊은 밤, 다음날작업준비를 위해 전투장들을 돌아보던 돌격대일군은 덕포대대의 니탄웅뎅이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두길도 넘게 깊이 파들어간 니탄웅뎅이에서 울려나오는 삽질소리, 밤하늘을 희붐하게 밝히며 웅뎅이에서 타오르는 홰불,

일군의 눈굽은 쩌릿이 젖어들었다. 온 하루 지꿎게 내리는 눈비에 온몸을 적시면서도 누구 하나 전투장을 떠나지 않은 청년들이였다. 그 밤에도 스스로 떨쳐나와 니탄을 캐는 청년들의 열정넘친 모습을 보며 일군은 마음속으로 웨쳤다.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청년들이 다 맡겠으니 더는 험한 포전길을 걷지 말아주십시오.)

덕포대대의 청년들만이 아니였다. 화진대대를 비롯하여 밤마다 홰불을 켜들고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청년혁신자들의 대렬이 날마다 늘어났다.

《강성대국의 새날을 부르는 대고조전투에서 청춘시절의 떳떳한 자서전을 새기라!》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공동구호를 받아안은 청년들의 기세는 더욱 높아졌다. 군적인 하루 니탄생산량이 종전보다 훨씬 높아져 어떤 날에는 거의 5천t에 달하였다.

군책임일군들은 니탄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니탄을 캐는족족 농장들에 날라다가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유기질비료생산을 다그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절세의 위인들을 명예농장원으로 높이 모신 원화협동농장벌에만도 수천t의 질좋은 니탄이 무겁게 실리였다.

드디여 올해농사에 한몫 단단히 하게 될 10만여t의 니탄이 확보되였다.

참으로 올해농사차비에서 이룩한 이 혁신적성과는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사설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영광의 땅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려는 군일군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의 결사의 각오와 헌신이 안아온 소중한 열매였다.

그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고 10월의 광장에 떳떳이 들어설 신심드높이 봄철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먹는 문제를 원만히 푸는것입니다.》

벼모판씨뿌리기가 시작되였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농사의 성과는 당면한 씨뿌리기전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논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할 지금이야말로 올해농사를 잘 지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는데서 중요한 시기이다. 씨뿌리기시작을 잘 떼고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야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잘 지을수 있다.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로,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들자!》라는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씨뿌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씨뿌리기도 전투이다. 농업부문 일군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결사관철할 불굴의 투지를 안고 씨뿌리기작전과 지휘를 패기있게 전투적으로 하여야 한다.

각지 농촌경리부문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높은 책임감을 안고 씨붙임면적을 철저히 보장하며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맞게 모든것을 씨뿌리기에 복종시키며 협동농장들에서 질좋은 여러가지 유기질비료를 낸 모판에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질적으로 뿌리도록 기술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농사의 주인은 농업근로자들이다. 일군들은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자랑찬 알곡생산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려는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를 남김없이 폭발시킴으로써 씨뿌리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자처리는 씨뿌리기의 첫 공정이다. 농장들에서는 새로운 종자처리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정보당 수확고를 더 높일수 있도록 실한 싹을 틔워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종자처리장에 늘 내려가 싹틔우기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싹틔우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장들에서는 모판에 부식토와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내고 벼모가 층하없이 자랄수 있도록 모판수평을 정확히 보장한 상태에서 씨뿌리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씨뿌리는기계와 저울, 종자주머니 등 여러가지 합리적인 수단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모판 평당 씨앗뿌림량을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각지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씨뿌리기에서 나서는 기술규정의 요구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벼모판씨뿌리기는 서둘러도 안되고 늦잡아도 안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해당 지방의 기후조건과 모내는 시기, 벼품종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씨뿌리는 시기와 량을 잘 타산하며 씨뿌리기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각지 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씨뿌리기를 철저히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보람찬 해,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펴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운반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리용

김화군 건천협동농장에서

김화군 건천협동농장에서 씨뿌리기준비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이제 당장이라도 씨를 뿌릴수 있게 쌓여져있는 모판자재들이며 규모있게 무져놓은 질좋은 부식토무지들, 포전마다에 늘어나는 거름더미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고 물으면 농장원들은 운반수단의 리용률을 높인데 있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문제를 놓고 농장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았을 때였다.

《운반수단의 리용률을 높일 때 씨뿌리기준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

관리위원장은 거름원천을 계속 확보하면서 생산된 거름을 빨리 모판으로 실어내자면 운반수단들에 대한 수리를 다그쳐야 한다고 력점을 찍어 말하였다.

까닭이 있는 말이였다. 농장포전들이 모두 마을과 멀리 떨어져있는 농장의 조건은 부림소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의 리용률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농장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짧은 기간에 뜨락또르와 련결농기계, 달구지들의 수리정비를 예견성있게 다그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다.

농장의 기술자들이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뜨락또르와 련결농기계수리정비에 달라붙었다. 기계화작업반의 기술자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며 필요한 부속품들을 가공하여 뜨락또르와 련결농기계수리를 다그쳤다. 수리분조에서도 달구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에 대한 수리정비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농장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례년에 없이 눈이 많이 내리는데 맞게 거름실어내기, 진거름운반 등 농사일에 소발구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수십개의 소발구를 새로 만들고 이미 있던 발구들을 새것이나 다름이 없이 수리하여 리용하였다.

뜨락또르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의 가동률이 높아지면서부터 거름실어내기가 쑥 앞서나갔다. 거름실어내기실적이 오르니 씨뿌리기준비를 비롯한 모든 농사일이 실속있게 되여나갔다. 이렇게 농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뜨락또르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수리정비하고 가동률을 높여 농사차비는 물론 씨뿌리기준비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본사기자 김순홍

로력일평가사업을 정확히

청진시 송평구역 근동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이 당면한 봄철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그 비결의 하나가 로력일평가사업을 정확히 하여 대중의 열의를 높인데 있다. 농장에서는 로력일평가성원들의 역할을 높이고있다. 로력일평가성원들은 매일 분조원들의 작업정량과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평가를 바로하여 그것이 로력공수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고있다.

농장일군들은 하루작업이 끝난 다음 분조들에서 로력일평가사업을 제때에 진행하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결과 농장원들은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자기들의 성실한 땀을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원철남

함흥시 회상구역안의 협동농장들에 가면 씨뿌리기를 잘할수 있게 모든 준비를 착실히 해놓은것을 볼수 있다.

모판자리마다 실어낸 질좋은 거름더미, 모판에 바람 한점 스며들세라 촘촘히 둘러친 바람막이바자, 분조창고들마다 그쯘하게 갖추어놓은 소농기구들…

하지만 그보다 더욱 눈길을 끄는것은 새로운 종자처리기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으면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으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습니다.》

씨뿌리기준비를 앞두고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이 중시한것은 종자처리문제였다. 그럴만도 하였다.

종자처리는 씨뿌리기에서 무엇보다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기술공정이였다. 그것은 아무리 품을 들여 모판에 질좋은 부식토를 많이 내고 다수확품종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도 종자처리를 잘하지 못하면 실한 모를 키워낼수 없으며 더우기는 풍요한 결실을 기대할수 없기때문이였다.

경영위원회책임일군이 새로운 종자처리기계를 구역안의 모든 농장들에 받아들이기로 결심한것은 지난해말에 진행된 영농기술경험발표회때였다. 한해농사를 말끔히 결속한 이후 농장기사장들을 비롯한 일군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이 경험발표회에서는 알곡수확고를 높이는데 이바지한 앞선 영농기술과 영농방법들이 발표되였다. 경험발표회에서는 풍흥협동농장에서 받아들인 새로운 종자처리기계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농장의 경험에 의하면 새로운 종자처리기계로 종자처리를 하여 씨뿌리기를 진행하니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았다. 종자처리에 들던 소독약은 물론 종자처리장의 온도보장을 위한 연료도 전혀 필요되지 않았다. 기계로 종자처리를 하니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었고 하나같이 실한 싹을 틔워 씨뿌리기를 질적으로 할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이전 시기보다 종자처리에 들던 로력도 훨씬 절약할수 있어 그 경제적효과성이 비할바없이 높았다. 결국 이 기계는 영농기술경험발표회에서 높이 평가되였고 구역안의 모든 농장들에서 적극 받아들여야 할 좋은 농사경험의 하나로 되였다.

이렇게 되여 새로운 종자처리기계를 만드는 문제가 제기되였던것이다.

—구역에서 새로운 종자처리기계를 만들어 농장들에 보내주자.

경영위원회책임일군의 이 발기는 모두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 협동농장일군들도 그렇게만 되면 씨뿌리기를 질적으로 잘하여 벼모를 실하게 키워낼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구역에서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높은 목표밑에 이 사업을 즉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해당부문 연구사들의 방조밑에 새로운 종자처리기계를 짧은 기간에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구역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한두대도 아닌 여러대의 종자처리기계를 만들자니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지만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내부예비를 찾아내면서 종자처리기계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생산된 이 기계를 구역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결과 구역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씨뿌리기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여 튼튼한 모를 키워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한해농사의 중요한 영농공정인 씨뿌리기에서부터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킬수 있는 새로운 종자처리기계를 받아들이게 되였으니 이 구역안의 농장들에서의 올해농사는 락관적이다.

본사기자 황연옥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벼모판씨뿌리기를 질적으로 하고있다.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옥류관에 료리전문식당이 건설된다

군인건설자들의 궐기모임 진행

대중급양봉사기지 옥류관에 료리전문식당이 새로 건설된다.

옥류관옆 부지에 조선식합각지붕을 이고 일떠서게 될 식당에서는 자라, 철갑상어료리를 비롯한 희귀한 고급료리들을 전문봉사하여 우리 인민의 식생활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24일 군인건설자들의 궐기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인민의 천만가지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려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옥류관에 료리를 전문으로 봉사하는 식당을 건설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인민에게 더욱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군인건설자들이 식당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과감히 벌려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지휘관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정신을 체질화하며 대담한 전개력과 혁신적인 안목, 완벽한 조직력과 능동적인 지휘능력을 지니고 전투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데 기여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공사에 력량을 총동원하고 군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며 공사속도와 함께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건설물의 질을 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당의 신임과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면서 모두가 이번 건설전투에서 대고조의 열풍을 일으켜 완공을 앞당기며 커다란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긍지높이 들어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실효성있는 교양사업

북청군 종산리당위원회에서

북청군 종산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선군령장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번영의 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일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성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보를 비롯한 여러 출판물들에서 최근년간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아래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한데 기초하여 당세포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이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고있다. 일군들부터가 우리 당의 선군사상과 그를 빛나게 구현해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위대성을 리론실천적으로 체득하기 위한 학습을 강화하여 대중의 능숙한 교양자, 선전자로 준비하고있다. 독보와 해설담화, 강연회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는 교양사업은 농장원들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마음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얼마전 농산제5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군은 우리 식 CNC공업을 창설하시여 주체공업발전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감동깊이 이야기해주었다. 그날 작업반에서는 거름실어내기과제를 120%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대중의 심리와 준비정도에 맞게 기동적이면서 실효성있게 진행되는 교양사업으로 농장원들속에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부강조국의 래일을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며 그이의 령도아래 기어이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낄 철석의 맹세가 세차게 불타오르고있다.

로농통신원 장세철

은을 내는 갱내 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

룡등탄광에서

룡등탄광의 갱내 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 조업이래 지난 15년동안 수백만t의 석탄을 실어날랐다. 많은 탄차와 전차를 쓰지 않으면서도 석탄운반에서 커다란 은을 내고있는 이 갱내 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은 우리 당이 제시한 3화수송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운반문제를 풀자면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을 놓아야 합니다.》

지난 기간 탄광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갱내 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관리를 짜고들고 그 정상가동을 보장하면서 많은 석탄을 실어내였다.

탄광의 일군들은 여러 갱들에서 생산하는 석탄을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갱내 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을 정상가동시키는데서 찾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과 지휘를 면밀히 짜고들었다.

특히 벨트갱에 힘을 넣고 로동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게 하였으며 정상가동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부속품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였다.

벨트갱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석탄생산성과여부가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갱내 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였다. 이들은 벨트콘베아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또한 석탄증산을 위하여 고심어린 탐구와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쏟아부어 갱내 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을 여러개의 단으로 개조하였다. 그리고 갱막장에 저탄소를 꾸리고 사령체계에 따라 석탄을 벨트에 싣게 하였다.

벨트갱에서는 또한 벨트콘베아의 수리정비작업에 필요한 로라를 비롯한 부속품을 만들고 그 생산기지들을 꾸리였다. 그리하여 운영과정에 뜻하지 않게 고장이 생기여도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기동적으로 수리할수 있게 해놓았다. 이와 함께 콤퓨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벨트콘베아의 운영을 과학화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갱내 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에 대한 점검보수작업을 실속있게 하고 그 운영에서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석탄을 제때에 수송함으로써 탄광의 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특파기자 김기두

복무관점이 높아야 문제가 풀린다

신의주기초식품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신의주기초식품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하여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이려는 일념안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통이 크게 궁리하고 높은 목표를 내걸어야 제기된 과업을 혁명적으로 해제낄수 있으며 일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몇해전 공장초급당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의목표를 세우면서 보이라개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그것은 당시의 보이라를 가지고서는 인민들에게 질좋은 기초식품을 정상공급하며 공장관리운영을 개선할데 대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초급당위원회가 보이라개조를 기술혁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제기하였으나 신통한 수는 인차 나오지 않았다.

이런 때 초급당일군은 열관리공들속으로 들어갔다.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다시금 새겨주면서 여러차례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여러가지 형태의 보이라중에서 공장실정에 맞는 새형의 보이라개조안을 찾게 되였다. 그러나 공장의 기술일군들과 토의해보니 소요되는 자재도 간단치 않았고 풀어야 할 기술적문제들도 수많이 제기되였다. 주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기로 결심하고 대중을 발동하여 유휴자재들을 수집하면서 기술자들에게 믿음을 주어 설계를 완성하도록 이끌어나갔다.

최금옥, 리광식동무를 비롯한 초급당일군들은 새 보이라도입에 참가한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높은 목표를 내걸고 투쟁해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는 보람도 크다.

—인민에 대한 복무관점이 높아야 문제가 풀린다.

이런 내용의 정치사업이 벌어지는 속에 열관리공들과 공무작업반원들은 더욱더 분발하여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새형의 보이라를 제작설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공장초급당위원회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기술혁명목표를 또다시 제기하고 그 실현에로 기술자들을 불러일으켰다. 정우선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은 보이라에 전자식수면계와 압력계전기에 의한 증기자동공급차단장치를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기사장 장훈동무와 기술일군들인 원윤건, 리영욱동무들은 이 기술혁신목표들이 성공에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당적분공으로 받아안고 뛰고 또 뛰였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하여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만이 끓어번지였다.

이 불같은 마음들에 떠받들리여 마침내 새형의 보이라는 열관리공 한명의 감시하에 자동적으로 조종되는 증기생산설비로 전환되게 되였다. 이것은 생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공장의 생산문화도 응당한 수준에 이르게 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성과가 클수록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된장, 간장의 발효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에로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을 또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배인 전영성동무는 이 사업에서 제기되는 자재보장을 맡아나섰고 직장장과 부문당비서를 비롯한 장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설비개조를 위한 전투에 떨쳐나섰다. 공무작업반원들은 집체적지혜를 합쳐 다른데서 만들어와야 한다던 10여개의 밀폐식원추형발효탕크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초급당위원회가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니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깃든 일터에서 일하는 보람을 한껏 느끼며 올해에는 기초식품생산공정을 콤퓨터로 자동조종하기 위한 보다 높은 목표를 내걸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 공장당조직의 사업은 목표를 끊임없이 높이 내걸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나갈 때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될수 있으며 그만큼 긍지와 보람도 느끼게 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조 선 중 앙 통 신 사 보 도

첨단돌파전의 《1211고지》 과학기술전선에서 일어난 일대 비약

우리 나라에서 최근년간 세계적높이에 올라선 과학기술성과 수많이 달성

우리의 과학기술이 새로운 대고조의 총진군길에 첨단돌파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지식경제시대에 모든것의 패권을 쥐기 위한 투쟁속에서 남들이 걸어온 과학기술발전의 단계들을 뛰여넘으며 세계적으로 앞선 과학기술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고있다.

첨단기술의 개척자, 전초병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타는 애국심과 비상한 창조력,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최근년간 인공지구위성제작국,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불패의 위용을 떨치고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게 되였으며 핵심기초기술을 비롯한 중요과학기술분야들이 우리 식으로 개척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가 급속히 추진되고있다.

첨단돌파전의 《1211고지》인 과학기술전선에서 이룩되고있는 이 자랑찬 성과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증시로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에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고있으며 비상한 속도로 세계를 딛고 올라서며 강성대국건설을 떠받들고있는 주체과학기술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추동력이며 강성대국은 과학기술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기술중시를 강성대국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짧은 기간에 최첨단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에서 과학, 교육기관,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시고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에게 세계를 굽어보는 안목과 배짱을 안겨주시였으며 과학기술중시의 거세찬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온 나라에 첨단돌파의 열풍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최근년간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는 대비약이 일어났다.

100% 우리의 힘과 지혜, 기술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제작하여 지난해 4월 또다시 성과적으로 발사한것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력사적리정표로 되였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인 경공업과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수많이 해결되였다.

농업과학자들이 최근년간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변혁적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과학기술적진보를 이룩하였다.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받들고 농업과학부문에서 벼농사의 휘황한 전망을 담보해주는 우리 식의 1대잡종들을 연구도입하였으며 강냉이1대잡종, 콩종자 등 다수 확알곡품종들을 육성하고 무비루스감자원종생산체계를 확립한것은 육종분야에서 혁명으로 되고있다.

영양랭상모재배와 소식재배, 두벌농사에 알맞는 겹재배를 비롯한 능률적인 재배방법들과 2배이상의 효과를 내는 새 시비방법 등이 연구도입되고 적기적작,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여러 영농기술들이 하나의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를 이루며 배합되여 영농방법에서도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

토양속의 린화합물을 농작물이 섭취할수 있게 전환시키는 린세균비료와 독성과 공해가 전혀 없는 새 생물농약 아베르멕틴을 비롯하여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성과들이 수많이 연구완성되였다.

급속히 늘어나는 연구성과들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농업체계기술이 완성되고 기후변화에 따르는 농작물생육과정의 특성에 대한 력사적, 시기적, 생리적분석모의에 기초하여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주는 생육모의기술, 생육예보체계가 개발확립됨으로써 과학기술과 농업생산이 밀접히 결합되게 되고 나라의 전반적농업이 과학농사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온 나라 대경사로 되는 선군시대 최신식비날론공장을 일떠세워 화학공업의 첨단을 돌파하였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전반적생산공정을 완전히 새롭게 현대화하고 화학공업의 특성에 맞게 우리 식의 콤퓨터조종체계를 완성함으로써 비날론폭포가 펼쳐지고 경공업과 농업전선에 절실히 필요한 수백종의 화학제품들이 쨍쨍 쏟아져나올수 있게 되였다.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고있는 새로운 섬유를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생산하기 위한 밝은 전망이 열리고 식료가공에서 독특한 발효제, 절임제로 되는 새형의 복합균이 개발된것을 비롯하여 경공업분야에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담보들이 튼튼히 마련되였다.

과학기술중시의 거세찬 열풍속에서 우리의 CNC기술이 패권을 쥐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창조정신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만이 독점하고있는 CNC기술을 개발하고 고속화, 고정밀화, 지능화된 고성능CNC설비들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냄으로써 나라의 기계공업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동시5축수자조종수력타빈날개가공반과 함가공유연생산체계가 개발완성된것을 비롯하여 이 첨단기술은 나라의 경제전반에 급속히 파급되고있다.

CNC기계공업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특수고속절삭공구들의 개발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사회주의자립경제의 기둥인 금속공업부문에서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주체철생산방법이 확립되였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과 과학적창조력을 총폭발시켜 야금공업의 가장 앞선 수준에서 우리 식의 강철생산체계를 확립하는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굴지의 대야금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도 21세기 야금법인 비콕스제철기술을 개발하여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는 주체철용광로를 일떠세우는 대사변을 안아왔으며 우리 식의 철생산방법의 완성은 우리 나라 금속공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열어놓았다.

현대야금공업의 최첨단인 초고전력전기로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한것은 선군조선의 정신력과 함께 과학기술적잠재력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새 세기 과학기술혁명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이 연구도입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성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현시대 과학기술발전의 핵심기초기술인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두뇌전, 기술전으로 우리 조국을 세계에 빛내일 각오를 안고 21세기 사회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정보기술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식의 콤퓨터조작체계를 개발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을 안고 청년과학자들은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밖에 소유하지 못한 독자적인 콤퓨터조작체계를 짧은 기간에 우리 식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정보기술분야에서 주체성과 자립성을 세우기 위한 든든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우리 식 콤퓨터조작체계가 더욱 발전되고 이에 기초하여 첨단기술인 고성능정보처리기가 연구완성되였으며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새롭고 능률적인 응용프로그람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있는것은 당의 령도밑에 프로그람개발강국으로 전변되는 주체조선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인공지능연구분야에서 《왕좌》에 확고히 올라선 우리의 《KCC바둑》프로그람은 우리 나라 정보기술의 발전수준과 거대한 잠재력을 자랑하고있다.

지능카드, 대형전자현시판 등 선진적인 전자요소, 전자정보설비들이 우리의 힘으로 개발되고 정보기술에 의한 경영관리, 생산기술공정의 무인화, 전자상업, 원격교육과 같은 혁신적인 사회경제문화생활방식을 수립하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고있다.

현시기 나라의 과학기술과 인민경제를 최첨단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나노기술연구가 심화되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능성나노재료들이 나오고 공업적생산토대가 구축되고있으며 나노재료를 리용한 수감소자, 발광표시소자, 려과막 등이 개발되고 그 응용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있다.

나노과학과 적용의 새로운 령역들이 개척되는 속에 우리 원료에 기초한 나노항균섬유생산공정이 확립되고 나노복합기술에 의한 보호도막제제조기술이 개발되여 문화유산영구보존기술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은 첨단나노측정설비인 주사굴현미경을 연구제작함으로써 나노기술연구와 나노기술제품개발에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생물공학부문의 과학자들이 유전자해석기술, 생명정보기술, 사립체의 기능해명 등 기초기술을 세계적으로 발전된 수준에 올려세우고 적용범위를 넓혀나가고있다.

클론기술이 비약적인 발전단계에 올라서 체세포클론화기술공정이 확립되고 클론개체들에 대한 유전자분석에 토대하여 연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우리 과학자들은 게놈에 의한 유전자전이기술을 확립하고 유전자해석에 기초하여 생물식별기술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함으로써 조류독감을 비롯한 비루스를 과학적으로 신속히 판정할수 있게 하였다.

생물공학분야에서 첨단인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사업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여 여러 종류의 줄기세포들에 대한 분리 및 배양, 검정기술이 확립되였으며 그 성과가 림상실천에 도입되고있다.

세계를 향해 돌진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첨단과학기술성과로 빛내여갈 일념을 안고 과학자, 기술자들은 기계공학을 비롯한 중요기술공학분야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고있다.

콤퓨터로 기계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원인을 확증하는 진동진단기술, 전기기계의 권선변형을 방지하는 강성구조 등이 특색있게 완성도입되여 기계설비관리에서 종래의 정기보수체계를 현대적인 상태보수체계로 전환시키고 중요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해양국의 특성에 맞게 첨단수준의 해양탐사기술이 개발됨으로써 대계도간석지제방공사를 과학적으로 담보한것을 비롯하여 해저자원탐사, 해양관측 등을 전망성있게 높은 수준에서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레이자에 의한 3차원도형새김기술, 정밀측정기술이 연구완성된것과 같이 레이자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에네르기의 개발과 생산, 리용과 절약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풍력과 태양열, 생물질에네르기를 비롯한 재생에네르기리용기술이 적극 연구개발되고있다.

여러 화력발전소들에 대형동력용보이라의 화염중심을 낮추는 새 기술과 현대적인 려자체계가 연구도입되여 전력생산정상화와 전력계통안정화실현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으며 수차날개형태의 최량화와 수차프로필설계의 표준화가 실현됨으로써 수력발전소들의 타빈효률을 2~3% 더 높일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수력발전소언제의 력학적안정성을 가장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최소한의 투자로 신속히 많은 전력예비를 동원리용하며 공업로들에서의 에네르기소비를 고온공기연소기술에 의해 절반으로 낮추고 저수지물자원의 보호관리와 퇴적방지, 전력생산을 첨단과학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새 기술들이 개발되였다.

우리 나라의 지형, 지질조건에 맞게 지질조사와 자원탐사의 과학성을 원만히 보장하는 첨단기술들과 가물막이를 하지 않는 다리건설공법을 비롯하여 중요기술공학의 연구성과들은 경제발전에서 절실히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있다.

대홍의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은 우리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는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경제발전에서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마그네샤크링카공업의 주체화를 훌륭히 실현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남흥과 흥남의 대화학기지들에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은 농업생산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가스화공정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나라의 화학공업이 자립적토대우에서 소리치며 일떠설수 있게 하고있다.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특수절연물들이 개발되고 갱조건에 알맞는 우리 식의 압축기가 완성되였으며 자립적인 은종이생산공정이 확립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과학연구성과들이 경제의 주체화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

인민경제현대화, 정보화실현을 위한 과학탐구의 길에서 대규모련속생산공정에 대한 콤퓨터통합조종체계가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 연구도입됨으로써 자체의 기술로 대규모생산기업소들에서 콤퓨터통합조종체계를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졌다.

철도운수부문에서 새형의 전기기관차개발을 다그치고있으며 단천제련소에서 최신기술들을 연구도입하여 국제환경보호기준을 돌파하고 기업소를 현대적이며 과학적인 생산지휘체계가 확립된 과학기술의 본보기공장으로 일신시킨것을 비롯하여 기술개조의 불길이 전국적판도에서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의학과학부문에서 전국적인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확립되고 공기려과와 멸균방식이 일체화된 공기정화소독기가 개발되여 보건사업에 리용되고있으며 풍부한 고려약재로 항암제를 만들어내는 등 의학과학기술이 첨단의 높이에 확고히 올라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인민들의 먹는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형물소독기와 바다밑의 압력지하수개발기술도 우리 식으로 연구완성되였으며 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양어에서 먹이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적토대가 마련되는 등 절실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과학기술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오늘 우리의 과학기술은 웅대한 발전전략을 가지고 최첨단을 향한 상승궤도를 따라 급속히 치달아오르고있다.

과학과 기술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현시대에 과학기술의 일대 비약이 일어나고있는 선군조선의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세계를 굽어보는 혁신적안목으로 첨단돌파전을 과감히 벌려나갈 때 점령 못할 과학기술의 요새는 없으며 강성대국대문을 여는 승리의 열쇠가 반드시 마련된다는것을 철리로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찬란한 전성기를 펼치고있는 주체과학기술은 가까운 앞날에 세계를 앞서나가며 인민들의 가장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꽃피우고 과학기술강국,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온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우는데서 거대한 위력을 떨치게 될것이다.

주체99 (2010) 년 3월 24일
평 양

—평천가내생산협동조합에서—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생산하기 위하여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간다. 질좋고 맵시있는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돌격대원들이 잊지 못하는 초급지휘관

희천발전소건설 철도성려단 청진철도국대대 부중대장이였던 김창주동무

지난 2월 4일 새벽이였다. 철도성려단 청진철도국대대가 맡은 막장은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보다 큰 로력적성과로 빛내이려는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의로 하여 여느때보다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작업갱굴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로부터 180여일, 깊이 수백m 계선까지 다달은 성과속에 4중대원들이 새벽교대에 진입하여 굴진속도를 높이면서 막 기세를 올리고있던 그 시각이였다.

갑자기 광차 한대가 미끄러져내리기 시작하였다. 련결고리가 빠지면서 광차서렬에서 분리된 그 광차가 경사진 선로를 따라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던 그때 《피하라!—》하는 다급한 웨침소리가 울리면서 광차를 맞받아 뛰여가는 한 돌격대원이 있었다.

그는 청진철도국대대 4중대 부중대장 김창주동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희천발전소의 물길굴공사장에 달려나와 늘 중대의 앞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위기일발의 순간에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여 혁명동지들을 구원하고 생을 마친 김창주동무,

그의 영웅적소행은 참된 인간의 삶은 무엇으로 하여 아름답고 빛나는가를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의 뿌리가 되자, 이것이 오늘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인생관입니다.》

청진철도국 위연기관차대 수리공으로 일하던 김창주동무가 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온것은 지난해 4월 중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발전소건설에 한몸 바칠 비상한 자각을 안고 그가 남먼저 조직에 찾아갔을 때 일군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김창주동무의 안해가 건강이 좋지 못하였던것이다.

남편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김창주동무의 안해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걱정은 말고 어서 희천으로 떠나세요. 우리 장군님께서 그토록 중시하시는 희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하는것보다 영예로운 일이 어데 있겠어요. 어서 떠나라요.》

건설장에 달려온 김창주동무는 처음엔 소대장으로 일하게 되였다. 그는 가설공사와 도로공사 등 대상작업들에서 초급일군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이 발휘하면서 모든 일에서 언제나 이신작칙하였다.

원래 기관차대에서 일할 때부터 그는 맡은 일에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적이여서 늘 집단의 존경을 받았다.

이러한 김창주동무였기에 인적드문 도양령기슭에 숙소를 전개할 때에도, 령에 도로를 내고 다리를 건설할 때에도 다른 소대들보다 몇곱절이나 불리한 조건에서도 소대를 이끌고 제기된 과업을 제일먼저 끝내였을뿐아니라 모든 일을 깐지게 높은 질적수준에서 해내여 온 대대에 책임성높은 지휘관으로 소문을 내였던것이다.

어느날 낮교대에 들어간 그의 소대가 첫 발파를 하고났을 때였다. 은폐지에서 하나, 둘 발파소리를 세여가며 발파정형을 확인하던 대원들은 그만 가슴을 조이였다. 불발된것이 하나 있었던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소대원들이 약속이나 한듯 발파공에게로 불안한 눈길을 던지던 그 순간 김창주동무가 누가 말릴새도 없이 막장으로 다시 뛰여들었다. 그리고는 발파되지 않은 대상을 찾아내여 재발파를 진행함으로써 소대가 그날 과제를 넘쳐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그는 모든 일에서 언제나 집단의 앞장에 섰으며 어렵고 힘든 과제가 나설 때마다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군 하였다.

교대를 넘겨줄 때에도 다음교대의 작업에 지장이 없겠는가 작업조건을 깐깐히 따져보면서 늘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하루일을 마친 후에도 막장을 돌아보면서 설친 일이 없는가 살펴보면서 맨나중에야 일터를 뜨는 사람도, 착암기를 잡으면 착암명수, 운반을 맡으면 운반명수로 이름을 날리며 언제나 높은 실적으로 위훈의 나날을 수놓은 사람도 바로 김창주동무였다.

어느날 대대의 일군들이 그렇게 몸을 전혀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앓아눕기라도 하면 어쩌겠는가고, 좀 쉬면서 하라고 말하였을 때였다.

김창주동무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40대 한창나이에 힘껏 일하지 않으면 언제 일해보겠습니까. 더구나 여기야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이 아닙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어가시는 초강도강행군의 걸음걸음을 제대로 따라서자면 전 아직 멀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창주동무는 대대의 4중대 부중대장으로 임명되였다.

소대장으로 일할 때보다 더 열정에 넘쳐 일하는 그의 이신작칙의 기풍과 깐진 일본새는 항상 중대와 대대의 본보기로 되였다. 또한 남달리 뜨거운 동지애를 지닌것으로 하여 그는 중대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대원들의 생일을 잊지 않고 있다가 생일상도 차려주고 누가 몸이 불편해하면 별식도 해주고 약도 가져다주면서 극진히 돌봐준 김창주동무,

한 대원의 작업복이 낡아진것을 보았을 때에는 자기의 작업복을 서슴없이 벗어주고 자기는 석수가 떨어지는 작업장에 뛰여들면서도 대원들에게는 장화와 비옷을 안겨준 심장이 뜨거운 지휘관,

어느날 저녁오락회뒤끝이였다. 대원들이 저마다 집에 편지를 쓰는데 김창주동무는 말없이 앉아 무슨 생각엔가 골똘하고있었다. 그것을 본 중대장이 집에 한번 다녀오지 않겠는가고, 앓는 안해를 두고 왔다는데 왜 지금껏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고 말하였을 때였다.

김창주동무는 미소를 짓더니 난 지금 집생각이 아니라 래일 진행할 작업에 대해 생각하고있었다고 하면서 품속에서 안해가 보내온 편지를 꺼내들었다.

《중대장동무, 저야 지휘관의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안해도 이렇게 적어보낸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언제나 앞으로만 내달리는 사람이 되라고.》

이런 그였기에 대대와 중대의 조치로 휴가를 받았을 때에도 집에서 휴식한것이 아니라 건설장에서 긴요하게 쓰이는 자재를 마련하는데 휴가기간을 아낌없이 바치였으며 그것을 구하자마자 기일을 앞당겨 건설장으로 달려왔던것이다.

《그는 정말 진실하고 열정적이였습니다. 실천력이 강하고 성실하며 뜨거운 동지애를 지닌 훌륭한 인간이였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우리와 만난 려단, 대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누구나가 이렇게 말하며 김창주동무를 잊지 못해하였다. 그러며 그의 몫까지 합쳐 더 많은 일을 할 결의를 다지였다.

김창주동무는 비록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지만 그는 오늘도 집단의 마음속에 살아 돌격대원들을 더 큰 위훈창조에로 부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영생의 삶을 누리며 전진하는 대오의 기수마냥 물길굴공사에 떨쳐나선 려단뿐아니라 희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전체 군인들과 건설자들을 위훈의 한길로 억세게 이끌어주고있다.

본사기자 류기풍

조선라오스친선협회와 라오스조선친선협회결성 20돐

기념집회 및 영화감상회

조선라오스친선협회와 라오스조선친선협회결성 20돐기념집회 및 영화감상회가 25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장에는 우리 나라 기발과 라오스기발이 세워져있었다.

집회에는 짜런 와린타라싹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라오스친선협회 위원장인 박관오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라오스친선협회 부위원장인 전영진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지난 20년간 친선협회들이 래왕과 협조, 친선을 강화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이손 폼비한동지와 함께 마련하여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쭘말리싸이냐쏜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좋게 발전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친선협회들이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서리라는것을 믿는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짜런 와린타라싹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라오스조선친선협회와 조선라오스친선협회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지난 기간 친선협회들이 다방면적인 협조를 추동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쭘말리싸이냐쏜동지의 건강과 사업에서의 보다 큰 성과를 축원하였다.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기를 바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기록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외국의 수반 및 저명한 인사들과 상봉》 제7부를 감상하였다.

방글라데슈독립 39돐에 즈음한

기념모임 및 사진전시회

방글라데슈독립 39돐에 즈음한 기념모임 및 사진전시회가 26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와 방글라데슈기발이 드리워져있는 모임장소에는 《조선인민과 방글라데슈인민사이의 친선단결 만세!》라는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조선방글라데슈친선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친선협회성원들, 시내 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친선협회 위원장의 연설이 있은 다음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방글라데슈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소개하는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후대를 위해 바치는 진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설비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최근 청진시 수남구역 어항소학교가 교육설비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잘하여 소문을 내고있다.

이 학교의 콤퓨터학습실과 외국어시청각실, 야외기상관측설비들을 돌아본 사람들은 《대단히 좋은 시도이다.》, 《임의의 정황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콤퓨터교육을 원만히 할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야외에 설치된 기상관측설비만 보아도 학교일군들의 수고가 느껴진다.》고 찬탄의 목소리를 합치고있다.

어항소학교가 이처럼 소문내고있는데는 《정열가》, 《실력가》로 불리우는 교장 박광일동무의 피타는 노력과 헌신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사실 콤퓨터학습실과 외국어시청각실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꾸린다는것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난관도 있었고 거듭되는 실패도 있었다. 하지만 박광일동무는 락심하지 않았다.

교장부터가 교육설비현대화사업의 주인공이 되여 앞장서나간다면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다는 배심이 그의 가슴속에 든든히 자리잡았다. 이런 드팀없는 의지를 안고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온 결과 콤퓨터학습실과 외국어시청각실을 자체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최대의 실리가 보장되게 완성할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 이룩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교육부문에 널리 일반화하는데도 앞장설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으로 쉽게 만족하지 않았다.

부단히 사색하고 끊임없이 창조하는것!

바로 이것이 교육일군으로서 그의 자세이고 일본새였다. 하기에 그는 자연학과목에 대한 수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연구사업에 련이어 착수하게 되였고 결과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야외기상관측설비들을 마련할수 있었다. 현재 이 학교의 야외에는 바람속도, 대기온도 등이 자동적으로 수감되여 수자로 나타나는 표시판이 설치되여있는데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자연에 대한 지식을 보다 정확하면서도 폭넓게 인식시키는데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교육설비현대화사업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에 고무된 학교의 교원들이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이바지하는 한가지이상의 가치있는 연구종자를 찾아쥐고 현실에 도입할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박옥경

《실용》 파쑈독재는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친미보수세력청산은 시대의 요구

올해공동사설에서는 남조선에서 외세가 없는 통일된 인민의 세상을 위해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기발을 높이 들고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공동사설의 호소는 남조선 현정세와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주장이다.

오는 6월 2일에 있게 되는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남조선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진보력량을 일방으로 하고 친미, 파쑈, 전쟁을 꾀하는 보수세력을 타방으로 하는 두 세력이 첨예하게 대결하고있다.

지금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전쟁세력의 책동은 말그대로 필사적이다. 그것이 남조선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중하기 그지없다. 보수집권세력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어떻게 하나 이겨 차지한 권력을 유지하고 그 지반을 다지기 위해 진보세력을 짓누르고 약화시키려고 발악하고있다. 그들은 보수언론들을 통하여 여론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조장하고있으며 각종 모략사건들을 련이어 조작하여 민심을 어지럽히고 친미보수, 랭전수구분자들을 규합하는 등으로 《선거》전에 몰두하고있다. 대세에 역행하는 력사의 반동들의 발악적책동은 정의와 애국에 살기를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애국적인 통일민주력량은 분렬주의자들의 교활한 리간, 와해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고 그에 단결의 힘으로 맞서나가야 합니다.》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은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이며 절박한 요구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앞에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이냐 아니면 대결과 전쟁의 길이냐 하는 운명의 두 길이 놓여있다.

올해의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진보력량이 승리하면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가 앞당겨지고 자주통일운동을 적극 추동해나갈수 있게 되지만 보수세력이 득세하게 되면 남조선사회의 파쑈화가 다그쳐지고 북남대결이 더욱 격화될것이며 통일운동앞에 더 큰 난관이 조성되게 될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가오는 《지방자치제선거》는 남조선인민들의 운명과 나아가서 민족의 장래와 잇닿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각 지역의 《단체장》들과 《의회의원》들을 뽑는 《지방자치제선거》는 정치세력들에게 있어서 지역을 장악하고 지지기반을 확보할수 있는 중요한 공간의 하나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살길은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평화와 통일애국의 길이다.

자주화, 민주화가 실현되여야 남조선사회가 인민들의 요구에 따라 자주적으로 발전할수 있고 사회에 정의가 구현될수 있으며 평화가 보장되여야 인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수 있다. 통일애국운동을 계속 추동해나가야 누구나 바라는 통일도 이룩할수 있고 민족적번영에 대한 념원도 성취할수 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생활체험을 통해 찾은 교훈이다.

지금 남조선정치는 극도로 반동화, 파쑈화되였다.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남조선에서는 외세의존이 정책화되여 근로인민들의 리익을 희생시켜 외세의 배를 불리워주는 행위들이 공공연히 빚어지고있으며 극악한 파쑈독재가 되살아나 온 사회가 공포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정치의 반동화, 파쑈화는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가로막고 인민들에게 무권리를 강요하고있으며 통일운동의 앞길에 시련과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바로 반역통치배들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짓밟히고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것이며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난관을 겪고있는것이다.

지난 2년간의 현실은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실용》파쑈독재를 매장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편안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바라는 모든 남조선인민들이 보수세력매장에 총궐기하여야 한다.

진보세력의 힘은 단결에 있다. 보수집권세력의 횡포무도한 파쑈탄압과 회유기만책동에 각계층의 련대련합과 조직적이며 대중적인 투쟁으로 맞서나가야 한다. 주의주장과 리념의 차이는 련대련합하지 못할 리유로는 되지 않는다. 형형색색의 단체들과 조직들,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녀성 등 각계층 인민들이 진보세력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

친미보수세력을 반대하는 과감한 투쟁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벌려야 한다. 보수세력의 회유기만책동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 투쟁이 간고하고 어려울수록 주저앉지 말고 용기백배하여 싸워야 한다. 뭉쳐서 싸우면 승리한다는 신심이 중요하다. 력사의 반동인 보수집권세력은 절대로 남조선인민들에게 자주화, 민주화, 조국통일을 선사하지 않는다.

력사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꾸준하고도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전진하고 발전한다.

남조선인민들이 오래동안 벌려온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통일애국투쟁은 력대로 이어져오던 파쑈독재《정권》에 파멸을 선고하였으며 애국위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만약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의 발악적인 장기집권책동을 저지시키지 못한다면 인민들이 피로써 쟁취한 그 모든것을 영영 잃을수 있다.

인민을 등진 파쑈독재세력이 오래간 전례는 어디에도 없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는 남조선의 평화진보세력, 통일애국세력은 리념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하나로 굳게 단합하여 극우보수세력의 《총규합》기도를 짓부셔버리고 다가오는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친미보수세력의 장기집권야망을 결단코 꺾어버려야 한다. 그 길이 자주적발전의 길,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길이며 평화의 길, 통일애국의 길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공동사설의 호소대로 남조선에 외세가 없는 통일된 인민의 세상을 세우기 위해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기발을 높이 들고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대중적으로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김 정 옥

반역《정권》에 대한 조소와 규탄

최근 남조선에서는 온갖 죄악으로 얼룩진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을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다.

2년전 《경제살리기》, 《친서민정책》 등 달콤한 《공약》으로 권력의 자리를 타고앉은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였다.

그러나 지난 2년동안에 펼쳐진 모든 현실은 그 《공약》이 사기와 협잡으로 일관된것이며 이제 더이상 보수당국에 기대할것이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당국의 집권 2년에 대하여 《총체적인 실패의 2년》으로서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졌고 민주주의와 평화가 후퇴했으며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는 여론이 보편적이다.

얼마전에 남조선의 한 야당의원은 현 《정부》의 집권 2년과 관련하여 《평가를 하기가 난감한 상태》라고 하면서 집권세력이 내세웠던 《공약》에 대해 《거꾸로 가버린 공약》, 《부실이 아닌 파산》으로 비난하였다. 다른 의원들도 《그동안 〈정부〉가 한짓이라는것이 언론악법의 통과와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세종시건설계획〉의 백지화로 분렬을 가져온것》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 2세대가 실업상태인 가정》을 헤아릴수 없이 많이 만든 《민중의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2년》이라고 한탄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현 집권세력의 정치는 《소통과 화합이 아닌 불통과 분렬》로 락인되고있으며 집권자를 믿고 당국의 《정책》을 념불외우듯 하는 사람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3대바보》로 조소받고있는 형편이다.

인민들에게는 악정을 실시하면서 《국회립법전쟁》과 세력권쟁탈을 위한 개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고있는 반역통치배들에 대한 야유조소도 그칠새없다.

남조선조계종 총무원장은 정치권내부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갈등을 서로 상반되는 교육의 영향을 받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자멸하는 다람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는 어느 한 프랑스작가의 우화에 비유하면서 정치권의 종말을 예고하였다. 그런가하면 《짧은 오리다리를 당겨 학의 다리로 만드는것은 무리이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오리다리로 만들려는것 또한 무리한짓이다.》 등의 유모아적인 비난도 쏟아져나오고있다.

한편 남조선각계층속에서는 《원칙고수》를 떠들어대며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집요하게 추구해온 보수당국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한 대학교수는 《MB2년 대북정책 어땠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수세력이 〈원칙〉만을 내세우면서 지금의 남북관계를 〈정상〉으로 평가하고있지만 그것은 〈자의적인 정세인식〉이다.》고 하면서 《지금의 정세는 〈정부〉의 단호한 립장에 의한것이 아니라 북의 주동적인 전략구도에 의한것》이라고 비평하였다.

당국의 무분별한 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는 랭전시대로 복귀하고있으며 30년전으로 후퇴하고있다.》는 불안과 우려가 섞인 말들이 여론화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어디에서나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남은 3년이 아득하기만 하다. 걱정이 태산이다.》는 아우성소리가 울려나오고있으며 보수패당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반감은 대중적인 반《정부》투쟁기운으로 번져가고있다.

얼마전 민주로동당은 통산참사와 초불시위탄압, 세종시문제, 4대강사업강행추진, 실업률증대, 대학등록금인상, 각종 악법제정 등 당국의 갖은 반인민적정책을 실례로 들면서 《〈정부〉의 2년은 우리 민중들이 불통과 거짓, 고통이란 무엇인가를 똑똑히 체험한 시간이였다.》고 까밝히고 《우리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무척 긴 악몽의 나날일수밖에 없었으며 남은 집권기간 3년에도 어떤 희망도 기대도 있을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지난 2년간을 통하여 사대매국노, 파쑈폭군, 민족반역자로서의 보수통치배들의 정체는 낱낱이 드러났다.

속담에 제가 제 무덤을 판다는 말이 있다. 지금 보수패당이 저들의 더러운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 마치도 인민을 위해 그 무엇을 할것처럼 너스레를 떨면서 노죽을 부리고있지만 그에 속아넘어갈 남조선인민들이 아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6월에 있게 될 《지방자치제선거》를 보수세력의 심판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해나선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장 윤 남

《선거》를 노린 필사적몸부림

《지방자치제선거》(《지방선거》)를 앞둔 남조선정국이 매우 어수선하다.

이번 《선거》가 정치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되고 앞으로 2012년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직접적영향을 주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각 정치세력들은 분주하기 짝이 없다.

특히 현 집권세력은 《지방자치제선거》는 《실용정부》의 집권 2년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띠는것으로 하여 저들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로 보면서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

집권후부터 오늘까지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매국과 반역, 파쑈와 독재를 일삼는 《실용정권》은 남조선각계의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되여 극도의 위기에 처하고있다. 이로부터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야당세력을 누르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있다. 이자들은 야당들을 《경제발목세력》으로 몰아대는 한편 《지지률》이 높은 후보를 내세운다 어쩐다 하면서 민심의 《지지》를 얻어보려고 꾀하고있지만 원래부터 권력욕과 사리사욕에 미친 정상배들의 집단인지라 후보선정문제를 놓고도 계파간, 계파내부의 싸움이 날로 치렬해지고있다.

《한나라당》것들이 저들의 《터밭》이라고 하는 경상남북도지역의 단체장자리들을 노리고 벌리고있는 개싸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내의 친리계는 지금 이 지역 지사후보로 나선 전 《행정안전부》장관을 극구 내세우고있다.

친박계는 친리계인 현 대구시장의 퇴진을 주장하면서 자기 파를 내세우려고 하고있고 친리계는 또 저들대로 친박계인 현 경상북도지사자리를 자기 파에게 넘길것을 요구하고있다.

후보추천을 둘러싼 두 계파간의 대립은 《공천심사위원회》구성을 놓고도 벌어졌다. 《공천심사위원회》 성원 15명중 친박계인사는 3명뿐이라고 한다. 약이 바싹 오른 친박계는 친리계가 지방권력을 독점하려 하고있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최악의 경우 《지방자치제선거》를 외면할 자세까지 보이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세종시문제를 둘러싼 친리계와 친박계간의 대립이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더욱 격화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사태가 심각해지는데 바빠난 《한나라당》대표는 박근혜에게 《지방자치제선거》에서 합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는가 하면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이 당 사무총장도 계파사이의 리해관계를 따르지 않겠다고 친박계를 탈래였다.

《지방자치제선거》를 둘러싼 《한나라당》내의 권력쟁탈전에는 계파들만이 아니라 일반의원들까지 뛰여들어 당상층부를 아연케 하고있다. 서울시장후보로 《한나라당》소속의 현 오세훈시장외에도 야심을 품은 이 당 의원 3명이 나서 도전장을 던지는 바람에 각계의 비난거리가 되고있다.

이러한 속에 최근 《한나라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정부패혐의로 구속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있어 《한나라당》을 수세에 몰아넣고있다. 자칫하면 수치스러운 《차떼기당》의 오명이 되살아나고 그것이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저들에게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고 타산한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제1의 공천기준》으로 그 무슨 《도덕성》을 들고나오는 등으로 민심을 회유해보려고 갖은 술책을 다 쓰고있다. 하지만 그것이 통할리는 만무하다.

남조선각계는 이번 《지방자치제선거》를 반드시 인민을 반역하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장으로 만들것을 다짐하면서 반《정부》투쟁기운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야당세력들도 집권 2년간 민심을 짓밟으면서 무능과 독재로 정치, 경제는 물론 북남관계마저 파국에로 몰아넣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선거》구호로 내들고 서로 련합하여 후보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지난 2월 경상남도지역에서 정당, 단체의 각계 인사 440여명으로 구성된 《희망자치만들기 경남련대》가 《선거》련합을 형성할것을 선언했으며 민주로동당, 진보신당 등은 인천시장후보를 비롯한 여러 《선거구》들에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3월 16일에는 서울 중구 등 10여곳의 기초단체장후보를 련합추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다음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지방선거야권련대회의》를 열어 야당세력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론의하였다.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배반하는 반역정치는 인민의 버림을 받기마련이다.

《지방자치제선거》가 보수패당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장으로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복 은 희

민심의 반영

얼마전 남조선에서 인터네트신문 《네이버》가 보수집권세력을 유모아적으로 야유, 조소한 글을 실었는데 그것이 하도 신통하여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고있다.

—역감정을 조장하면 《국회》의원

—인민들의 여론을 외면하고 《언론관련법》을 강행처리할수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민들의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에 강경대응하면 《경찰청》 청장

—《정권》의 나팔수가 될수 있으면 《KBS》 사장

—로동자들의 요구와 립장을 무시하고 협박과 《100만해고설》 등 각종 류언비어를 류포하면 《로동부》 장관

—남조선농산물보다 미국농산물을 더 강조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복지예산》을 깎고 서민들의 주요생활필수품들에 《죄악세》(죄를 들씌우는 악한 세금)를 적용하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탈세를 잘하면 《국세청》 청장

—탈법을 잘하면 《검찰청》 총장

—스스로 《법》을 어겨봐야 《법》을 어긴자들에게 강력하게 《법》을 집행할것이라고 생각하면 《법무부》 장관

—《통일부》의 폐지를 주장하고 통일을 반대하면 《통일부》 장관

—민족문화발전에는 등을 돌리고 자기 구미에만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역의 균형적발전보다는 당국자가 추진하고있는 《4대강정비사업》선전에 앞장서면 《국토해양부》 장관

—부정부패의 왕초이자 당국자와 한통속이면 《국무총리》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친일파이면 《독립기념관》 관장

이 얼마나 신통하고 신랄한 야유, 조소들인가.

남조선의 정치판은 그야말로 개판이다. 인민을 등진자들이 남조선에서 정치를 한답시고 활개치며 돌아가고있으니 인민들에게 차례지는것은 불행과 고통뿐이라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이 기막힌 현실은 반인민적이며 반통일적인 《실용》독재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본사기자

반미반전, 미군철수를 위한 253차 금요집회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반미반전, 미군철수를 위한 253차 금요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그 어느때보다 발광적으로 감행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미호전광들의 이러한 행위는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패권을 잡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고 까밝히고 그들은 전쟁책동에 들떠 화약내만 풍기는 미군이 남조선에서 당장 철수할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결의문이 랑독되였다.

결의문은 미국이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을 바라는 국제사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쟁연습으로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결의문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썩은 정치가 낳은 교육계의 부패현상

최근 남조선교육계에서 부정부패행위가 성행하고있어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얼마전 서울시《교육청》관리들이 학교교장들로부터 뢰물을 받거나 승진을 미끼로 막대한 돈을 옮아낸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교육당국의 고위인물들까지 이 사건에 관련되여있다는것이 폭로되였다.

바빠맞은 서울시《교육청》이 그 무슨 《인사쇄신》을 한다 어쩐다 하며 사태수습에 돌아치고있지만 사건은 이미 엎지른 물이다.

지금까지 신성한 교육을 돈벌이수단으로 만드는 남조선의 반인민적인 교육제도와 그 그늘밑에서 학교운영을 치부에 악용하는자들에 의해 교육계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사건들이 지속적으로 터져나왔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교육계의 부정부패현상이 오늘처럼 험악한 지경에 이른적은 일찌기 없었다. 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남조선의 《실용정권》에 있다.

보수패당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기 전부터 저들이 집권하면 교육분야에서 제기되는 난문제를 일시에 풀것처럼 《교육개혁을 약속》한다느니 뭐니 하는 귀맛좋은 소리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 《교육개혁》이라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교육계를 미국식《시장만능주의》에 부합되게 완전히 상업화하는것이였다. 반역도당이 들고나온 《대학민영화》, 《대학자률화》놀음도 결국은 대학들을 모리간상배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제 마음대로 뭉치돈을 벌게 하는 부패의 터밭을 만들어주는 꼴이 되였다. 《실용》통치하에서 학교들이 《가장 훌륭한 돈벌이공간》으로 되여가고있는 판에 돈에 환장한자들이 먹을알이 있는 교장과 교육계관리의 자리를 놓고 치렬한 암투를 벌렸으리라는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관리들속에서 터져나온 부정부패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전 서울시 《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이라는자는 2008~2009년사이에 장학사와 교감 등 20여명에게서 많은 뢰물과 돈을 받아먹고 근무평점을 조작하여 그들을 승진시켜주었으며 《교육계의 MB》라고 불리웠던 전 서울시교육감이라는자도 여기에 끼여들어 한몫 크게 벌었다고 한다. 이것은 《실용정권》하에서 더욱더 썩어가는 남조선교육계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있다. 오죽했으면 이 사건을 놓고 남조선의 한 언론이 《고여있던 물에 살던 물고기들이 옛날〈정권〉을 다시 만나 활개를 치는 꼴》이라고 개탄했겠는가. 결국 남조선보수당국이 추진한 《교육개혁》이라는것은 교육계의 부정부패현상을 더욱 만연시켜 교육계간상배들의 배만 불리워주는 한마디로 부패조장행위이다.

오늘 남조선각계층 인민들은 보수당국과 케케묵은 교육계의 관리들이 《교육계를 진흙탕으로 만들고있다.》고 울분을 터치면서 반인민적인 《MB교육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얼마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대학자률화〉 등 당국의 부당한 교육정책이 교육계의 부정부패행위를 조장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지방자치제선거〉를 통해 경쟁만 부추기는 당국의 〈교육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도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수패당이 지금 성행하는 교육계의 부정부패행위를 《단속통제》한다고 소동을 피우고있지만 그것은 쓸데없는짓이다.

남조선당국이 반인민적인 교육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교육사업은 더욱 황폐화되고 교육계의 부정부패행위도 결코 근절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본사기자 심 철 영

공무원로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민주로총산하 로조단체들 공동기자회견

남조선의 공무원, 건설, 운수로조 등 민주로총산하 로조단체들이 22일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당국의 탄압에 끝까지 맞서싸워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당국이 권력을 총동원하여 민주로총산하 로조단체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대는 등 탄압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재통치에 항의해나서고있는 민주로총 핵심력량의 발목을 잡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고 회견문은 까밝혔다.

회견문은 민주로총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투쟁으로 대답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참여련대 글발표

남조선의 참여련대가 19일 론평을 발표하여 공무원로조에 대한 괴뢰당국의 부당한 탄압책동에 항의하였다.

론평은 공무원로조가 결성식과 결의집회를 가지려는것과 관련하여 괴뢰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불법집단행동》이니 뭐니 하며 탄압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면 지어 집회장소로 되여있는 체육관측에까지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지난해부터 로조설립을 제약하며 사사건건 방해하던 당국이 이번에는 신고할 필요조차 없는 내부에서의 행사마저 막으려 하고있다고 론평은 비난하였다.

론평은 로조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침해하고있는 당국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금 국제사회까지도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이번 폭압조치는 명백히 직권람용행위라고 론평은 단죄하였다. 론평은 당국이 공무원로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로조의 설립을 인정하는것과 함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것을 요구하였다.

이 투쟁은 당국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것이라고 하면서 회견문은 모두가 사회의 민주화와 로동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금강산관광의 시급한 재개를 주장

남조선의 진보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서울에서 금강산관광을 시급히 재개할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현 《정권》의 발악적책동에 의해 금강산관광사업이 오늘 파국적사태에 놓여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북남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은 그동안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속에서도 민족의 지향에 맞게 계속되여왔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를 비롯한 현 집권세력이 부당한 구실을 붙여 지난 시기의 경제협력사업성과들을 헐뜯는데 몰두해왔다고 규탄하였다. 최근에 《통일부》가 북이 여러차례에 걸쳐 담보해준 신변안전보장문제를 아직까지 문제삼는것은 사실상 관광사업을 완전히 중단시키겠다는것외에 다름이 아니라고 단체들은 주장하였다.

단체들은 당국이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계속 고집하며 협력사업을 방해한다면 력사의 심판을 피할수 없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공동선언실천으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단체들은 당국이 금강산관광재개에 즉시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금강산관광재개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낱낱이 드러난 미제의 세균전내막

남조선 인터네트방송 《민중의 소리》가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가 세균전을 벌릴것을 명령한 사실이 폭로된것과 관련하여 19일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얼마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1951년 당시 세균전의 효과를 알아볼 목적으로 조선전쟁에서 대규모실전연습을 벌릴것을 지시한 미합동참모본부의 명령문이 발견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미군병사들이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세균무기가 사용된 사실을 증언하였고 국제조사단까지 북의 현지를 돌아보고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하였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때마다 미국이 이를 전면부인해나섰다고 론평은 비난하였다.

론평은 이번에 명령문이 발견됨으로써 세균전내막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이 이미전부터 세균무기를 보유하려고 일제의 악명높은 731부대 전범자들과 비밀리에 거래하고 세균전에 일본《관동군》을 고용하는것과 같은 야만행위를 저질러왔다고 론평은 규탄하였다.

론평은 조선전쟁때 저지른 미국의 만행들중 많은것이 아직까지 미해명으로 남아있다고 하면서 아무리 진실을 감추려 해도 언제인가는 반드시 폭로되기마련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미국의 만행자료들을 남김없이 밝혀내기 위해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 노력할것을 론평은 호소하였다.

진보세력말살을 노린 폭압책동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가 18일 성명을 발표하여 단체성원에 대한 괴뢰당국의 폭압만행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날 경기지방《경찰청》이 단체의 고문인 민족정기구현회 전 회장 홍갑표를 《보안법》위반혐의로 몰아 강제련행하고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는 평소에 인터네트에 진보적인 글들을 게재하여 인민들을 통일운동에로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보수세력의 반통일적망동을 비판하는 글을 쓴 진보적인사라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경찰이 《북을 고무, 찬양》하였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그를 탄압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지금 경찰당국이 일반서점에서 판매되는 진보적인 책들마저 압수해가며 폭압의 도수를 높이고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이 모든 탄압소동은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폭압,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현 집권세력의 술책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는 할 말이 있어도 말할수 없고 쓰고싶은 글이 있어도 쓸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절감하게 되였다고 성명은 지탄하였다.

성명은 진보세력말살을 노린 당국의 폭압책동을 준렬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단체가 진보적인사에 대한 폭압중지와 《보안법》폐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자주적대를 세우는것은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간섭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랭전의 종식과 때를 같이한 국제관계의 세력변화를 악용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새 세기에 세계를 저들의 독점권에 기초한 일극세계로 만들려고 발악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의 자주권이 심히 유린당하는 비극적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인민들의 자주적지향에 역행하여 국제사회를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작용하는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에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책동앞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자면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시종일관 주체의 혁명적기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추동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는 《대외관계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자!》라고 지적되여있다.

이 구호에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자주적립장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고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평등하고 공고한 기초우에서 발전시킬수 있다.》

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가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에 맞게 나라들사이에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매개 나라가 대외관계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는것이다.

대외관계에서 자주적대를 세운다는것은 자주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대외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독자적인 주견과 결심에 따라 대외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해나가는것은 자주독립국가의 기본징표의 하나이며 자주성을 옹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국가활동이다.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자주적대를 세우지 못하면 민족의 리익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낼수 없다.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요구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듯이 나라도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리면 국호는 있어도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자주적대를 세우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한두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를 이어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전진하는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으며 때로는 엄혹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 때도 있다. 난관이 겹쌓일수록 혁명하는 나라들은 자주적립장을 더욱 확고히 견지하고 자기 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야 한다.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승리의 열쇠가 있다. 일시적인 난관앞에서 주견과 신념이 흔들리면 나라와 민족을 지킬수 없다. 그렇게 되면 혁명과 건설을 망치고 노예적예속의 길에 굴러떨어지고만다. 력사는 주대가 없이 남의 풍에 노는 나라는 례외없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세기 말엽에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것은 맹목적으로 큰 나라에 추종한 결과에 빚어진것이였다.

랭전종식후 자본주의에 환상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이 제공하는 《처방》을 받아들인 나라들의 실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기 나라 실정을 잘 아는것은 그 나라 인민들이며 정치는 그에 맞게 해야 한다. 나라마다 처한 환경과 실정이 다른 조건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다 적용될수 있는 《만능처방》이란 있을수 없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와 《다당제》의 달콤한 《처방》에 귀를 기울인 나라들은 각성없이 그것을 자기 나라에 끌어들였다. 결국 이 나라들은 사회정치적혼란과 민족간, 종족간 분쟁의 소용돌이속에 말려들게 되였다.

자주적대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굴러떨어지는가는 이라크사태가 잘 말해주고있다. 이라크는 한때 미국에 강경하게 맞섰지만 페르샤만전쟁이 개시되자 미국의 무차별적인 군사적공격과 위세에 공포를 느끼고 뒤걸음치기 시작하였다. 만전쟁이후 이라크가 완전히 총을 놓고 항복할것을 요구하던 미국은 나중에는 대통령궁전까지 개방할것을 강박하였다. 자주적대가 약한 이라크는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이 하라는대로 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반테로전》무대를 이라크에 옮기고 이 나라를 손쉽게 가로타고 앉은것은 자주적대가 없는 후과가 얼마나 치욕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자주정신이 강한 인민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조선혁명은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여 승리하여온 혁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고 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를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사상과 신념에 따라 자신이 책임지고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갔다.

우리 당은 사대주의, 교조주의, 온갖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반대하고 그 어떤 외부의 압력과 간섭도 단호히 배격하였으며 기성리론과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우리 혁명의 특성과 리익의 견지에서 모든것을 분석판단하고 자기의 신념과 결심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복잡하고 간고한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그 어떤 광풍과 정치지진에도 끄떡없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올수 있었다.

우리 공화국은 당의 령도밑에 20세기의 마지막년대에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핵소동도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것으로 단호히 짓눌러버렸다.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침략책동과 압력에 겁을 먹은 일부 나라들이 제 할 소리도 못하고 그에 굴복하여 지난날 자기의 민족적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품들여 마련한 군사적대상물들을 제손으로 파괴하여버리는 머저리짓을 하고있을 때에도 우리 인민은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자기 할 일을 다하였다.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우리에게 정치외교적압력과 제재를 집요하게 가하는 한편 무력으로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발광적으로 벌리였다. 새로운 조선침략전쟁계획을 작성하는것과 함께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주변에 대대적으로 증강배치하는 등 반공화국공세는 극도에 달하였다. 특히 지난해에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터무니없이 문제시하면서 전례없는 반공화국광증을 일으켰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그처럼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지난해를 세상사람들이 보란듯이 변이 난 해, 우리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였다.

이것은 우리 식의 독특한 선군정치, 우리의 강한 자주적대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혁명과 인민의 운명은 자기자신이 틀어쥐고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립장,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자기 식대로 살아가며 혁명을 해나간다는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강경담대한 배짱,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자주의 길로 억세게 나아가려는 굳은 신념이 있기에 우리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안아올수 있었던것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선군사상과 로선에 기초한 자주정치를 당당히 실시하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세상에 높이 떨치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세상 누구도 따를수 없는 제일가는 담력가, 배짱가이시며 자주적신념의 최고화신이시다. 우리 당과 인민의 강한 자주적대는 그이의 담력과 배짱, 신념의 반영이며 구현이다.

국제관계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오늘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권위와 위신은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우리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세계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있다. 지난날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들까지 우리 공화국과 국가관계를 수립한것은 우리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은 공동구호에 제시된대로 대외관계에서 일관하게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높이 떨쳐나갈것이다.

리 현 도

메히꼬, 도이췰란드신문의 글

강성대국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메히꼬신문 《우니다드 나씨오날》 15일부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사진을 모시고 《조선, 2012년을 향하여》라는 표제밑에 여러 제목의 글들을 옹근 한면에 특집하였다.

신문은 2012년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해이다, 이 뜻깊은 해에 주석의 생전의 념원대로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문패를 달려는것이 조선인민의 목표이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위성발사, 그 시대적무게》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난해 4월 조선에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우주에로 솟구쳐올랐다.

조선사람들은 한결같이 환희로 들끓었다.

그러나 세계는 서로 다른 심경에서 조선의 인공위성발사를 주시하였다.

누구는 경탄과 선망의 눈길로, 누구는 충격과 놀라움의 눈길로, 누구는 공포와 시기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조선의 적대세력들은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발사를 놓고 탄도미싸일이라고 우겨대면서 국제적《제재》소동까지 일으켰다.

위성을 자체로 제작하고 성공적으로 발사한다는것은 그만큼 국력이 강하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이나 일본이 조선의 위성발사에 그토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국제적소동을 일으킨것은 저들이 적대시하는 조선의 강대성에 대한 비명이며 공포의 표출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것은 조선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며 조선에는 그것을 능히 실현할수 있는 힘이 있다. 다시말하여 조선인민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힘차게 두드렸다는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발사의 의미심장한 시대적무게가 있는것이다.

신문은 《2012년을 향하여》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 조선에서는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학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하여 전체 인민이 총공격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그 진두에는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서계신다.

그이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국토의 면모를 일신하고 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문화분야에서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다.

희천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수력발전소건설이 적극 추진되고 금속공업을 비롯한 주요경제부문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실현되였으며 나라의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단계에 들어섰다.

2012년을 향하여!

지금 조선인민의 온넋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게 될 2012년의 그날에 가있다.

도이췰란드신문 《로테 파네》 3월호는 《2012년을 향하여 전속력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인민은 2009년에 150일전투와 100일전투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고 하면서 지난해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하고 이 나날 조선에서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가 창조되였다, 조선인민은 이 속도로 2012년을 향하여 전진하고있으며 반드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게 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녀성들의 역할을 고도로 중시하는 조선

중국의 신화통신이 최근 우리 나라 녀성들의 행복한 모습을 소개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오늘 조선녀성들은 당과 정부의 관심과 사랑속에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있다. 낡은 사회에서 조선녀성들은 최하층의 생활을 하였다.

조선은 1945년에 일본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되였다.

다음해인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된 후 조선녀성들의 지위는 점차 높아지고 역할은 부단히 확대되였다.

조선에서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어나가는 력량으로 되고있다.

통신은 1948년 조선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녀성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고 하면서 지난해에 당선된 대의원들가운데서 15.6%가 녀성들이다, 이를 통해 조선녀성들의 사회적지위에 대해 잘 알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녀성들은 가정생활뿐아니라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이름떨치고있다고 하면서 통신은 우리 나라에서 수많은 녀성들이 공화국영웅, 로력영웅으로 되고 명예칭호를 받은데 대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로력적위훈을 떨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통신은 조선당과 정부는 녀성들의 역할을 고도로 중시하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로동법, 인민보건법, 가족법의 실시 등 사회적혜택을 통하여 녀성들의 사회정치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주고있는데 대해 상세히 보도하였다.

통신은 특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녀성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은정에 대하여 전하였다.

이 나라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미국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정탐활동강화를 획책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정탐활동을 강화하려고 획책하고있다.

21일 일본 지지통신은 태평양지역주둔 미공군이 괌도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에 대형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상주시킬것을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까지 무인정찰기 4대가 이곳에 배비되게 된다 한다.

조류독감 발생

로므니아의 뚤챠도에서 최근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

이 도의 한 가금목장에서 죽은 2마리의 닭들에 대한 검사결과 그것들이 조류독감비루스에 감염되였다는것이 확인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멸의 함정을 파는 《반테로전》

미국이 감행하고있는 《반테로전》이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헤여나올수 없는 함정속에 더 깊이 빠져들면서 비참한 후과만을 초래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2001년 《9.11사건》을 계기로 류혈적인 《반테로전》을 개시한이래 그 주요무대를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이라크로, 다시 이라크로부터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기면서 침략과 살륙행위를 일삼았지만 거듭 쓰디쓴 참패만을 기록하여왔다.

공식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반테로전》을 벌리는 과정에 죽은 미군수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1 000명, 이라크에서 4 400명계선에 이르고있다.

또한 미국이 《반테로전》에 탕진한 자금은 3조US$에 달한다. 이것은 가뜩이나 심각한 금융위기에 시달리고있는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수 없다.

얼마전 미국방성은 200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기간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반테로전》에 내몰리웠던 미군병사들가운데서 무려 14만명이 외상성뇌손상이라는 《반테로후유증》진단을 받고 고통속에 날과 달을 보내고있다고 실토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반테로전》으로 받아안은 《선물》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미국은 지금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등 나라들에로 《반테로전선》을 확대하면서 제 무덤을 스스로 파고있다.

《테로분자들을 소탕한다》는 미명하에 감행되는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의 파키스탄령공침범행위는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다.

올해 정초부터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은 수십차례나 파키스탄의 주민지역들에 무인기를 들이밀어 무차별적인 미싸일공격을 가함으로써 수많은 민간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또한 미국은 《알 카에다》의 훈련기지가 예멘으로 옮겨졌다고 떠들어대면서 이 나라에 대한 군사적간섭기도를 더욱 로골화하고있으며 소말리아에 《알카에다》와 련관된 그 무슨 《테로기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 나라의 남부지역에 있는 한 마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을 감행하여 100여명의 민간인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문제는 미국이 《반테로전》의 주요대상들로 삼은 나라들이 페르샤만과 아덴만으로 들어가는 전략적요충지들에 위치하고있다는것이다.

그가운데서도 기본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들이다.

미국이 이 나라들을 선택한것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을 잘 알고있기에 이슬람교나라들은 미국의 《반테로전》확대에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강력히 반발해나서고있다.

파키스탄륙군사령관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테로분자들의 본거지가 있다는 소문을 내돌리고있는것을 무근거한것으로 락인하고 자기 나라에서의 미국의 군사작전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예멘외무상은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자기 나라에 대한 군사적간섭기도를 로골화하고있다고 규탄하고 자기 나라 땅에 미군사기지가 설치되거나 외국군대가 들어와 《반테로》작전을 벌리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력사적경험은 외국의 군사적개입이 큰 오유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는 자체의 힘으로 테로와의 투쟁을 벌릴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미국이 《반테로》의 명목밑에 복잡한 예멘문제에 개입하려고 꾀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에짚트신문 《알 아흐바르》는 그렇게 되면 아랍나라들이 강점되는 결과가 초래될것이라고 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미국의 《주장》이라는것은 결국 침략과 전쟁뿐이라고 단죄하였다.

지금 여론들은 미국의 《반테로전》이 벌어지는 나라들에서 그것은 도리여 《미국과의 전쟁》으로 변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반테로전》을 확대하는데 열을 올리면 올릴수록 자멸의 구렁텅이에 보다 깊숙이 빠져들게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이스라엘의 도발적인 행위를 단죄

요르단국왕 아브둘라흐2세가 22일 한 외교석상에서 팔레스티나령토에서 계속 감행되는 이스라엘의 도발적인 행위를 규탄하였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이 꾸드스에 있는 이슬람교성지들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있는데 대해 단죄하였다. 현시기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의 협상을 재개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이 지역의 평화노력을 파괴하는 부당한 조치들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아시아나라들사이의 협조

라오스와 몽골이 22일 농업부문에서 호상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캄보쟈와 말레이시아는 인신매매, 테로 등 범죄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영국에서 파업

영국에서 20일 항공운수업체인 《브리티쉬 애어웨이즈》회사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로조단체의 호소에 따라 일어난 파업에는 비행기승무원들을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임금을 올리며 로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회사당국에 요구하였다.

파업으로 비행기운행이 중지되여 려객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한다.

미군기지설치를 반대

일본 사가현의회가 최근 자기 현에 미군기지를 설치하는것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최근 정부내에서 후덴마미공군기지이설지의 하나로 사가비행장을 선정하는 문제가 론의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결의는 미군기지를 사가현에 절대로 둘수 없다고 밝혔다.

결의는 《사가현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있는 지역의 상공을 미군용기가 날아다니는것을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앙골라에서

앙골라에네르기 및 물상이 20일 《세계 물의 날》에 즈음하여 진행된 행사에서 정부의 물자원개발계획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모두를 위한 물계획》을 작성하고 2012년까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하면서 계획이 실현되면 농촌지역의 약 360만명 주민들이 깨끗한 먹는물을 보장받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면마에서

면마에서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2009-2010회계년도에 6만t의 고무를 수출하였다. 이것은 지난 회계년도에 비해 2만t 더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논써레치기를 하고있는 에짚트농민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배격

—유럽동맹위원회 대외무역담당 위원이 최근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보호무역조치를 실시하면서 세계무역기구 성원국들사이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질질 끌고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그러한 처사는 협정체결이 추진되는것을 바라지 않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고 그는 까밝혔다.

—수단전국선거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기자회견에서 나라의 총선거와 관련한 미국비정부기구의 요구를 배격하였다. 최근 이 기구가 수단에서 총선거를 위한 준비가 되여있지 않다고 하면서 선거를 뒤로 미룰것을 요구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그릇된 주장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선거준비를 위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있다고 하면서 선거는 반드시 제 날자에 시작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자연피해

—까자흐스딴의 동부까자흐스딴주에서 최근 눈석이로 인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20일현재 약 900채의 살림집이 물에 잠겼으며 6 400여명의 주민들이 소개되였다.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와 캔사스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20일 많은 눈이 내려 피해가 났다. 폭설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도로들에서 자동차들이 뒤집혀지고 비행기운행이 취소되는 등 교통이 혼란상태에 빠졌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국제적물의를 일으킨 날조보도사건

지난 13일 저녁이였다. 그루지야의 《이메지》TV방송통로로 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졌다. 나라에 로씨야군대가 침입하였으며 싸아까슈빌리대통령이 살해되였다는것이다. 방송원은 이와 관련하여 편집국이 비상체제로 사업하게 된다고 언명하였다. 텔레비죤으로는 수도로 진입하고있는 로씨야의 땅크서렬들과 현 그루지야정부의 반대파대표들이 이끄는 림시정부가 조직된 사실, 뜨빌리씨국제비행장이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도로가 막혀 혼잡이 일고있는 상황, 상점들과 연유공급소들에서 혼란이 조성되고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로 붐비는 영상자료들이 현지보도들과 안받침되여 방영되였다. 모든것이 실지그대로인듯싶었다.

허나 이것은 완전한 날조였다. 그루지야수도에서는 로씨야땅크의 그림자조차도 찾아볼수 없었고 모든것이 예전그대로 흐르고있었다. 날조보도고 안자들은 로씨야와 그루지야사이의 랭랭한 관계를 악용하여 앞으로 벌어질수 있는 사태를 가상한 편집물을 꾸며냈던것이다. 편집물에 도용된 화면들은 2008년 8월 그루지야사태때에 찍은것이였다.

하지만 편집물의 이러한 허위성을 시청자들은 전혀 알수 없었다. 날조보도후 텔레비죤방송에서는 이것은 가상적인 편집물이라고 짤막하게 소개하였다. 그러나 날조보도에 접하여 혼란상태에 빠진 시청자들중 누구도 이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하기에는 그루지야에 로씨야군이 침입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였던것이다. 그루지야와 로씨야사이의 군사적충돌이래 두 나라 관계가 악화의 일로를 걷고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로씨야군대에 의한 대통령죽음까지 연출해낸 편집물날조극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더우기 날조된 특종보도가 시청률이 제일 높은 《황금시간》에 방영된것으로 하여 그것이 던진 충격은 대단히 컸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복닥소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도시의 통신이 단절되였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수 없으나 나라의 신경이라고 할수 있는 통신의 마비사태는 사람들로 하여금 방금 본 가짜편집물방영내용을 사실그대로 믿게 하였으며 그들의 공포심을 격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심장발작을 일으킨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루지야의 전역이 완전한 혼란상태에 빠졌다. 시간이 썩 지나서야 사람들은 그것이 완전한 허위보도였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사태는 날조편집물방영자측의 사죄로 끝나지 않고있다. 불안과 공포에 떨던 수많은 사람들속에서 터무니없는 거짓편집물을 방영한자들에 대한 격노의 파도가 세차게 일었다. 그루지야의 도처에서 날조극을 만들어 방영한 《이메지》TV방송회사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비발쳤다. 전 국회의장이며 현재 《민주주의운동—통일그루지야》 지도자인 니노 부르쟈나제는 날조된 편집물을 방영한것은 야당지도자들을 목표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심리적테로행위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많은 주민들, 특히 녀성들과 아이들이 날조보도내용을 현실적인 사변으로 생각하였기때문에 불안에 떨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의의 그루지야를 위하여》의 한 인물은 《이메지》TV방송회사의 행위를 《철면피한짓》으로 평하였다. 그루지야당국과 국회고위인물들도 《이메지》TV방송회사 관리들과 날조편집물제작자들의 행위를 《무책임한 행위》로 비평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메지》TV방송회사 총사장을 해임하며 거짓편집물을 제작하여 방영한 사람들의 활동을 금지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루지야에서뿐이 아니다. 이번에 날조된 특종보도는 국제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남부오쎄찌야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 정치적도발로 규탄하였다. 프랑스외무성은 그루지야의 있지도 않은 야당의 폭동과 그루지야를 반대하는 로씨야의 군사작전과 관련한 날조편집물을 방영한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발기》로 된다고 비난하면서 그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것을 주장하였다. 이 나라의 AFP통신은 《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를 그루지야야당지도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친정부적인 선전으로 평가하고있다.》고 전하였다.

사실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도 놀란것은 서방이다. 그것은 그루지야의 정치정세에 깊숙이 관여하고있는것이 다름아닌 서방세력이기때문이다. 약 2년전에 벌어진 로씨야와 그루지야사이의 군사적충돌은 그를 립증해주는 증거이다. 표면상 이 충돌은 로씨야와 그루지야사이의 대결로 비쳐졌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로씨야를 한측으로 하고 그루지야를 로씨야견제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다른 한측으로 하는 심각한 정치군사적대결이였다. 때문에 군사적충돌이후 로씨야와 서방사이의 관계는 한때 극도로 팽팽해졌었다. 서로 이웃하고있는 로씨야와 그루지야가 지금까지도 관계를 풀지 못하고있는것은 그루지야를 정치군사적으로 적극 후원하고있는 서방의 검은 마수와 중요하게 관련된다.

그루지야에서 이번과 같은 편집물날조극이 연출된것은 우연하지 않다. 사실상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여있는 그루지야에서는 정적은 깃들었어도 그 어떤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로씨야와의 제2군사적충돌이 일어날수 있는 예민한 공기가 감돌고있다. 로씨야의 그루지야침공을 주제로 한 날조편집물방영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정세분석가들은 국제적물의를 일으킨 이번 날조보도사건이 정치적색채가 짙은것으로 하여 그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것으로 보고있다.

본사기자 배 금 희

ㄱ-01050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 집 위 원 회